오픈넷 미디어리터러시

안전한 섹스 즐거운 섹스

opennet

머리말

본 자료집은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조성하기 위한 오픈넷의 미디어리터러시 사업의 일환으로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과 성과 재생산을 권리로 접근하는 관점을 참조하여 즐겁고 안전하게 성관계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강의 <안전한 섹스, 즐거운 섹스>(2021.9.1~10.6)의 결과물입니다. 강의는 성교육을 출산이나 성기 결합 중심의 성행위로 사고하는 협소한 관점을 벗어나 성적인 관계 맺기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조건과 분리할 수 없고 지대한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배우고, 성폭력으로부터 나는 물론 상대방까지 지키면서도 성적 터부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여 성적 관계를 긍정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안내 받고, 상대방과 동의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해보고, 성과 재생산을 수치가 아닌 권리로 인식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의 당시 제공되었던 PPT 와 강의 내용을 최대한 자세하게 자료집에 수록하려 노력했습니다.

오픈넷은 포괄적 성교육이 여성의 성적 낙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수많은 N 번방들이 사라지는데 일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오픈넷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필요한 인터넷에 대한 과도한 국가적 검열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본 자료집이 인터넷 이용문화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 년 1 월 6 일

책임 기획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포괄적 성교육

안전한 섹스
즐거운 섹스

1 강	**좋은 섹스 VS. 나쁜 섹스**
2 강	섹스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 줄 **동의**
3 강	**몸과 감각의 탐구**
4 강	**즐겁고 안전한 섹스를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것들**
5 강	**안전하고 즐거운 섹스를 위한 규칙 만들기**

1 강

좋은 섹스 vs. 나쁜 섹스

인문학적으로 섹스를 사유하기

유 민 석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좋은 섹스 vs 나쁜 섹스

인문학적으로 섹스를 사유하기

소개

본 프레젠테이션은 섹스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사유하기를 목표로 합니다. 특히 성을 어떻게 사유할 수 있는지, 성욕이란 무엇이며 성행위란 무엇인지,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은 무엇인지, 철학자들이 섹스를 어떻게 찬양하고 비하해왔는지, 좋은 섹스와 나쁜 섹스를 가를 수 있는지를 통해 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더 즐겁고 더 안전한 섹스를 할 수 있는 사유를 길러보고자 합니다.

목 차

1. 성철학 - 성에 대해 사유하기

2. 개념적 성철학
  2.1. 성욕, 성행위, 성적 쾌락
  2.2. 성적 지향, 성도착, 성정체성

3. 규범적 성철학
  3.1. 성 비관주의와 성 낙관주의
  3.2. 좋은 섹스 vs 나쁜 섹스

1. 성철학 - 성에 대해 사유하기

1. 성철학 - 성에 대해 사유하기

왜 이성간의
결혼은 신성하지만
동성결혼은 불경하다고
이야기될까?

성철학이란

성과 사랑 연구와 관련된 응용철학의 한 갈래입니다.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성정체성, 성관계 동의연령, 동성애처럼 성적 지향과 정체성에 대한 윤리와 "성행위란 무엇인가?"와 같은 개념의 분석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섹슈얼리티와 성정체성, 젠더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한 질문도 포함합니다. 앨런 소블 Alan Soble 과 주디스 버틀러 Judith Butler 는 대표적인 성철학자입니다.

현대의 성철학은 때때로 서양 페미니즘으로부터 정보를 얻습니다. "성의 기능은 무엇인가?", "로맨틱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어떤 행위를 성적으로 만드는 본질적인 특징은 있는가?", "어떤 성행위는 좋고 어떤 성행위는 나쁜가?" "어떤 기준에 따라 좋은 성행위와 나쁜 성행위가 판별되나?", "합의된 성행위가 비도덕적일 수 있는가?", "성행위는 윤리의 영역 밖에 있는가?", "성과 생물학적 생식의 관계는 무엇인가?", "성과 생물학적 생식은 둘 중 하나 없이 존재할 수 있는가?", "성정체성은 (생물학과 같은) 근본적인 존재론적 차이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섹슈얼리티는 젠더의 기능인가 아니면 생물학적 섹스의 기능인가?"와 같은 성차, 성정치, 성정체성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이 제기했던 문제는 성철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성철학이 탐구한 많은 주제 중에는 생식, 피임, 금욕, 결혼, 유혹, 간통, 가벼운 성교, 치근덕거림, 성매매, 동성애, 자위, 성폭력, 성희롱, 사도마조히즘, 포르노, 수간, 소아성애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 성의 광대한 영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적 쾌락이나 만족을 탐색하고 그것을 달성하려는 인간의 욕망과 활동과 관련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인간의 창조와 관련된 인간의 욕망과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정한 종류의 특정한 신체 기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특징이며, 쾌락이나 생식 또는 둘 모두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성철학을 규범적 성철학과 개념적 성철학으로 구분하여 강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성철학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성에 대해 어디에 방점을 두는 가와, 연구자들의 성향 또는 관심사가 두 철학이 서로 달라 서로 좋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념적 성철학은 성욕, 성적 지향, 성도착, 성적 쾌락, 성폭력, 포르노그래피, 결혼, 섹스 등 성과 관련된 개념들의 가치중립적인 개념적 분석 자체에 관심을 둡니다. 반면 규범적 성철학은 '포르노그래피는 옳지 않은가?', '섹스는 결혼에 국한되어야 하는가?', '성적 쾌락은 사랑에 종속되어 있는가?'와 같은 윤리적이고 실천적이며,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보입니다. 따라서 개념적 성철학이 성과 관련된 현상을 중립적으로 보고하고 기술하는 사회과학에 가깝다면, 규범적 성철학은 성과 관련된 현상에 가치를 평가하고 의미를 따지는 윤리학에 가깝습니다.

1. 성철학 - 규범적 성철학

<리얼돌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인가?>

규범적 성철학(Normative philosophy of sex)은
성행위, 성적 쾌락 및 그것들이 취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치' 또는 '윤리'에 관해 질문하는 성철학의 한 분야입니다.

규범적 성철학은 성적 활동이 선한 삶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를 조사하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성행위를 자제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덕적 허용이 있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즉 규범적 성철학은 성행위에서의 윤리 또는 도덕 등을 고려하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철학의 한 분야인 성도덕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규범적 성철학과 성도덕은 분간하기 힘든 지점이 있습니다. 성도덕은 옳고 그름을 질문하는 윤리학 또는 도덕철학의 하위 분야로서 성에 대한 옳고 그름을 질문하는 것이고, 후자는 성을 다루는 성철학의 하위 분야 중 하나로 성과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는 차이가 있을 듯합니다. 즉 성도덕 또는 성윤리가 '윤리에서 출발해서 성을 다룬다'라면 규범적 성철학은 '성에서 출발해서 윤리를 다룬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과 관련된 윤리를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얼돌과 같은 이슈은 규범적 성철학에서 다룰 법한 좋은 사례일 것입니다. 현재 리얼돌을 둘러싼 의견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요, 얼마전 대법원은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 하여 수입통관을 불허했습니다. 대법원의 이와 같은 입장은 리얼돌이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여 왜곡된 성인식을 고착시킨다는 여성주의 입장과 비슷합니다. 반면 리얼돌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추구의 한 방편으로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니 국가가 나서서 그것을 규율하는 것은 국가의 과도한 간섭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규범적 성철학자들은 리얼돌에 대해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1. 성철학 - 개념적 성철학

<성욕이란 무엇인가?>

개념적 성철학(Conceptual philosophy of sex)은
성욕, 성행위, 성적 쾌락 등 성과 관련된 개념을 분석하는 성철학의 한 분야입니다.

개념적 성철학자들은 성과 관련된 것들의 개념 정의와 개념 분석을 중점 연구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들은 성적인 현상을 정의하는 것과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 믿습니다. 비개념적 성철학자들이 성적 현상을 정의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 도달하는 것 사이에는 구별이 있을 수 없으며, 성적 개념에 대한 분석과 성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것과는 매우 상반되는 입장인 것이죠. 가치관과 도덕관 그리고 자연적, 사회적 또는 개념적 사실 사이에 사실적인 구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철학에서 끝없이 논의되는 매력적이고 문제입니다.

성적 욕구라는 인간의 욕망에서 가치판단을 제외한다면 우리들은 성욕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2. 개념적 성철학

2. 개념적 성철학

2.1. 성욕
2.2. 성행위
2.3. 성적 쾌락
2.4. 성적 지향
2.5. 성도착
2.6. 성정체성

이제 개념적 성철학의 개념을 바탕으로 성욕, 성행위, 성적 쾌락, 성적 지향, 성도착, 성정체성 등 성을 둘러싼 다양한 개념들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합시다.

2.1. 성욕 sexual disire

성욕은 단순히 생물학적 충동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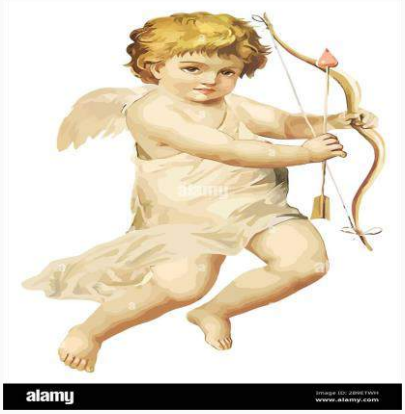
아니면 의식적인 심리적 상태인가?

먼저 '성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성욕이란 무엇이며, 성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심각한 수준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면 어김없이 성욕을 포함해 인간의 본능인 욕구는 적절하게 통제되고 억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됩니다. 성욕은 그저 단순한 생물학적 충동일 뿐일까요?

성욕을 둘러싼 철학적 논쟁은 성욕이 단순히 쾌락적인 충동에 불과하다는 쾌락론과 성욕은 그보다 복잡한 의도와 의미를 갖는다는 의도론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한미녀를 떠올려볼까요? 그녀는 섹스(성관계)를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인 협상 카드로 사용하죠. 그렇다면 한미녀에게 성욕은 단순한 충동에서 비롯된 쾌락일 뿐일까요?

2.1. 성욕 sexual disire



성욕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성욕은 꼭 사랑을

향해야 하는가?

많은 철학자들은 성욕이 본질적으로 위험하고,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악의적이라 주장합니다. 반면 어떤 철학자들은 성욕이 인류를 화합하게 하고 그 자체로 즐거움을 주는 선의적인 것으로 보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2.2. 성행위 sexual activity

성행위는 곧 아이를 낳기 위한 재생산 행위인가?

그렇다면 오럴 섹스와 애널 섹스는 성행위가 아닐까?

다음으로는 '성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성행위가 꼭 재생산을 위한 성관계와 동일한 것은 아니죠. 만일 재생산을 위한 성관계만을 성행위라고 규정한다면, 많은 이성애자들의 오럴섹스와 애널섹스, 비이성애적인 성행위들은 전부 성행위가 아닌 것이 될 거에요.

2.2. 성행위 sexual activity

성행위에는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할까?

그렇다면 의사가 환자의 성기를 만지면 곧 성행위인가?

무엇이 성행위인지 명확하게 정의하는 건 쉽지 않아요. 이를테면 성행위에 신체적 접촉이 꼭 있어야 한다면, 비뇨기과 의사가 성기를 만지는 행위도 성행위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반면 폰섹스나 영상통화를 이용한 성관계는 성행위가 아닌 것이 되겠죠. 여러분들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2.2. 성행위 sexual activity

성행위에 꼭 성욕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성노동자가 성욕 없이 펠라치오를 수행하고 있다면, 성행위가 아닐까?

또 성행위에 반드시 쾌락이나 성욕이 포함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폰섹스나 영상통화를 이용한 성관계는 명확하게 성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길거리에서 마주친 일면식도 없는 낯선 이와 눈이 마주쳤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성적 쾌락을 느끼게 되었다면 그것 역시 성행위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편으로, 돈을 벌기 위해 성노동을 하는 성노동자는 성욕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의 행위가 성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죠.

성행위와 성욕과의 상관성을 이렇게 분리한다면, 성행위와 성욕을 상호연관된 것으로 간주하여 예상하지 못한 결과나 위험, 폭력 예방 차원에서 성욕을 통제해 충동적인 성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2.3. 성적 쾌락 sexual pleasure

성적 쾌락은 단순히 감각적인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는 고차원적인 향유 또는 태도인가?

이제 '성적 쾌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죠. 어떤 이들은 성적 쾌락이란 단지 감각적인 오르가즘과 같은 것으로 가려운 곳을 긁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성적 쾌락이란 그보다는 고차원적인 것으로 햇빛 아래에 누워있거나 조각 퍼즐을 맞출 때나 영화를 봤을 때와 비슷한 향유의 감정 또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오르가즘이나 자위 같은 감각으로서의 쾌락(pleasure-as-sensation)과 달리, 느낌로서의 쾌락(pleasure-as-feeling)이나 태도로서의 쾌락(pleasure-as-pro-attitude)은 특정한 신체적 장소(bodily location)이나 성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않는, 멋진 섹스의 결과 전체적으로 자존감이 높아진 느낌이 들거나, 섹스에 대해 만족스러웠다는 만족감 같은 태도에서도 쾌락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3. 성적 쾌락 sexual pleasure

성적 쾌락의 충족이 성행위와 성욕의 일차적 목표인가?

그냥 출산하기 위해서만 성행위를 할수도 있지 않나?

성적 쾌락과 성행위는 서로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성적 쾌락과 성행위는 서로 상관없는, 분리된 것들일까요? 아니면 서로 긴밀한 연결을 갖는 것들일까요?

물론 우리는 성적 쾌락이 없거나 적을 때도 성행위를 하곤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출산을 위한 섹스나 성노동의 경우가 그럴 것입니다. 나아가 성행위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적 쾌락을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은 보통 성적 쾌락을 위해 성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성적 쾌락은 성행위를 하는 목표가 되며, 성행위는 성적 쾌락을 위한 수단인 셈이죠.

따라서 성행위는 성욕을 통한 성적 쾌락의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성적 쾌락을 목표로 성행위라는 수단을 이용합니다. 마치 우리가 재미를 느끼기 위해 영화를 보는 것이지, 영화를 보기 위해 재미를 느끼는 것이 아닌 것처럼요.

따라서 성적 쾌락이 성행위와 전혀 상관없는 것은 아닌 셈이 됩니다. 따라서 혹자는 성행위를 "성욕을 만족시키는 경향이 있는 행위"로, 성욕은 "특정한 육체적 쾌락을 위한 욕망"으로 정의합니다.

물론 그냥 운동하기 위해서, 자기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섹스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출산을 위해서 섹스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섹스가 즐겁지 않았다면 출산율은 곤두박질 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성욕과 성행위를 추동하는 원인에 성적 쾌락이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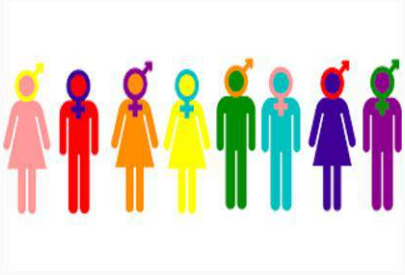
2.4. 성적 지향 sexual orientation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은 가변적이고 다양하고 부차적인 **성적 선호**(sexual preference)와 달리,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이다.

다음으로 '성적 지향'을 살펴볼까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과 성적 선호(sexual preference)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다루어지지 않고 성적인 충동의 감정으로 막연하게 규정되고 있어요. 하지만 성적 지향과 성적 선호는 엄밀히 다릅니다. 우선 성적 선호의 경우 금발에 대한 선호 또는 풋 페티쉬와 같은 성적 선호는 개인마다 차이가 크고, 복합적이며, 부차적이고 가변적이에요. 반면에 동성애나 이성애, 양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은 보다 근본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둘 모두 제어될 수 없는 충동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조율가능하고 안정적인, 제어될 수 있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 성적 지향 sexual orientation



성적 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세 가지 뿐일까?

흔히 성적 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의 세 가지만으로 주로 논의되지만, 사실은 성적 지향의 수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쉬메일(shemale - 상반신은 피메일의 특성이고 하반신은 메일의 특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끌리는 남성의 성적 지향은 무엇일까요? 또 동물성애까지 성적 지향에 포함시킨다면 성적 지향의 수는 무수해지지 않을까요?

2.4. 성적 지향 sexual orientation

성적 지향은 성적인 끌림인가,
감정적인 끌림인가?

전미 심리학회의 성적 지향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성적 지향은 “남성, 여성 및 양성을 향한 감정적, 낭만적, 성적 끌림의 지속적인 양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만일 한 남성이 그가 성적으로는 남성에게 끌려도, 여성에게 감정적으로 (낭만적도 성적도 아닌) 끌렸다면, 미 심리학회의 정의대로라면 그는 이성애자인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성적 지향 개념을 성적 끌림과 낭만적 끌림에 제한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2.5. 성도착 sexual perversion

도착이란 말은 자연에 반대된다는 뜻 뿐 아니라 정상에 반대된다는 뜻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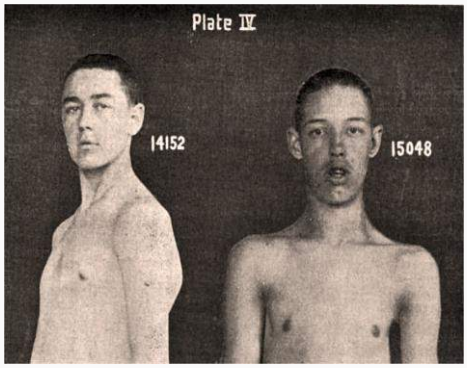
따라서 성도착 개념을 제거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 성도착 개념은 필요없는걸까?

성도착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요? 도착이란 말은 자연에 반대된다는 뜻 뿐 아니라 정상에 반대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착 개념은 넓고 다양한 차원에서 부정적인 행동이나 양상을 지칭하는 용어와 쉽게 호환됩니다. 즉 비도덕적이다, 혐오스럽다, 괴상하다, 생물학적으로 비정상적이다 등등과 같은 표현들 말이에요. 이처럼 성도착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종의 편견을 담고 있는 용어로 쓰이기 때문에 일부 철학자들은 성도착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착 개념이 필요없다는데 동의하나요? 혹자는 도착을 "절제되고 공유된 기쁨, 상호 탐구, 자기 긍정, 통합이 아닌 성욕"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즉 절제되고 공유된 기쁨, 상호 탐구나 자기 긍정, 통합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성욕들은 모두 도착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기준에 미달된 형태의 성욕이 전부 도착이라고 보는 건데, 이러한 기준에 동의하시나요? 이 정의에 따르면 웬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도착적이지 않을까요?

2.5. 성도착 sexual perversion



성도착은 자연스럽지natural 않은 섹스를 의미한다.

그런데 자연스럽지 않은 섹스란 무엇일까?

2.5. 성도착 sexual perversion

분변기호증coprophiliac 은 성도착인가?

혹자는 '자연적' 성욕은 성행위에 참여한 이들이 느끼게 될 각각의 중첩된 층위의 상호 자각을 포함하는 반면, 성도착은 그러한 중첩된 층위의 성적 흥분을 포함하지 않는 성행위에 대한 지속된 선호를 뜻한다고 설명합니다. 중첩된 층위의 상호자각은 쉽게 말하면 "나는 그가 흥분했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는 내가 흥분했다는 것을 자각하며, 이어서 나는 그가 나로 인해 흥분되었다는 것을 자각하는" 그러한 일련의 중첩된 과정을 의미합니다. 성도착의 흔한 사례로 꼽혀왔던 분변기호증은 타인과의 섹스에 분변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분변이 섹스에 포함된다고 해서 중첩된 층위의 성적 흥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겠죠. 분변기호증은 일반적으로 분변과 섹스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섹스 행위에 분변을 포함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오히려 분변은 섹스 행위에서 중첩된 층위의 성적 흥분을 더욱 자극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니 분변기호증도 중첩된 층위의 자각과 관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분변기호증을 성도착으로 치부하는 것이 부당할 수 있겠죠?

2.5. 성도착 sexual perversion

오럴 섹스를 삽입 섹스에 비해 선호하는 이성애자는 도착인가?

어떤 이는 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성행위가 도착적인 성행위와 도착적이지 않은 섹스를 구분 짓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이 꼭 모든 성행위가 재생산이라는 단일의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강한 주장이라기보다는, 단지 자연적 성욕은 일반적인 생리적 환경에서 재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잉ㄴ 상황에서 재생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 성욕을 도착이라고 보자는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오럴 섹스를 삽입 섹스에 비해 선호하는 이성애자가 있다면요? 그의 성행위는 재생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요. 그렇다면 그의 성행위도 도착적인 성행위라고 규정해야 마땅할까요?

2.6. 성정체성 sexual identity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정체성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드라마 <마인>에서 배우 김서형이 연기한 정서현은 동성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고 효원그룹의 장남인 한진호와 사랑없는 결혼을 합니다. 드라마는 현실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성에게 사랑의 감정과 성애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우리 사회는 인정하려 하지 않죠. 성정체성을 떳떳하게 밝힌 어떤 이들은 거리에서 린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거나 이성애자 정체성을 가졌다고 잘못 주장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기인합니다. 인종차별 사회에서 비백인이 백인 정체성을 무의식중에 내면화하는 것과 비슷하겠죠.

그렇지만 자신의 정체성 공개 혹은 비공개는 외부에 의한 압력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군가는 동성애자라는, 누군가는 양성애자라는 정체성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혹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무관심할 수도 있죠. 심지어는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성정체성이 본인에게 중요하지 않거나, 동일한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화와 문화적 실천 방식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죠. 혹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서 일 수도 있어요.

2.6. 성정체성 sexual identity

"저는 동성애자입니다"라는
커밍아웃은 어떤 역할을 하나?

정체성이라는 것은 개인의 정보를 담고 있어 설명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규정력을 갖는 것이므로 규범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은 사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공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체성을 밝힌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며 우리 사회 전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정체성의 공적인 측면 때문이죠. 어떤 이가 누군가에게 "저는 동성애자입니다"라고 말했다면, 우선은 스스로의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타인에게 설명하고 알려주기 위해 말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정체성이 권력에 의해 위협 당하거나 사회적 통념에 의해 부인되는 상황에서 저렇게 말했다면, 억압에 저항하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타인에게 자신을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 타인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타인이 그를 더 일관적으로 바라보고 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죠.

3. 규범적 성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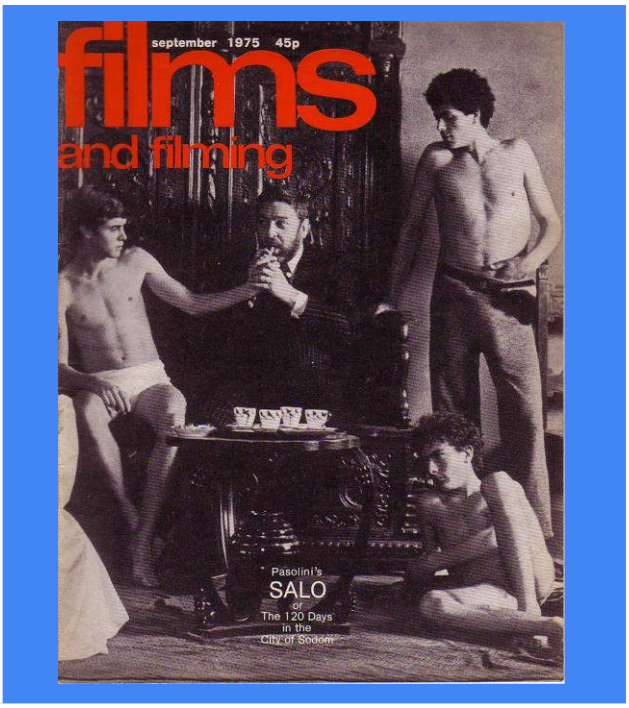
3. 규범적 성철학

3.1. 성 비관주의와 성 낙관주의

3.2. 좋은 섹스와 나쁜 섹스

규범적 성철학은 성적 활동과 성적 쾌락의 가치와 이것으로 빚어지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의 가치를 평가하고 의미를 따지며 윤리적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자 합니다. 규범적 성철학의 관점이 성적인 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섹스행위를 가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3.1. 성 비관주의와 성 낙관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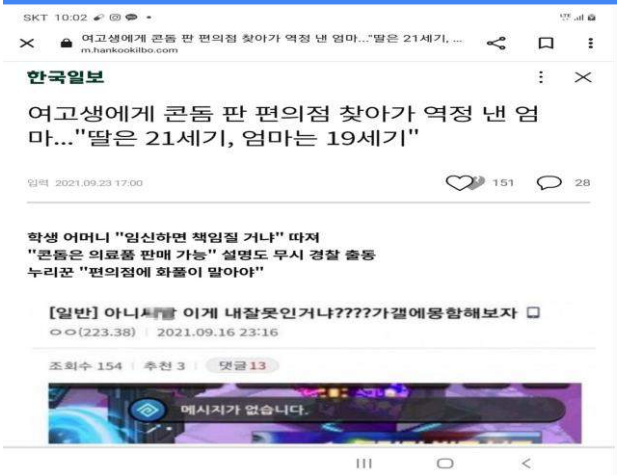


서양 철학사에서 성행위(섹스)는 소외된 주제였습니다. 당연히 그 가치에 대한 평가 역시 낮았죠. 저명한 많은 철학자들이 성적 비관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예컨대 아우구스티누스는 섹스의 쾌락이 우리를 지배하여 위험하므로 성관계는 오직 출산을 위해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퀴나스는 부부 관계와 출산을 목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칸트는 정언명령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유일한 것으로 섹스를 주목했고, 사르트르는 성적 욕망이 상대방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부정적으로 간주했어요.

그러나 비관론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사드와 같은 이들은 강간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성행위를 긍정하면서 반대의 극단으로 나아갔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유형이죠. 러셀, 프로이트와 같이 비교적 현대 시대에 와서야 철학자들은 섹스를 일반적로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존재하는 성적 충동 또는 성적 욕망의 본질을 어떻게 바라보는 가에 따라 성행위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평가는 달라집니다. 즉 성을 어떻게 바라보는 가의 차이점으로 인해 성적 낙관론자라고 부르는 철학자들과 성적 비관론자라고 부르는 철학자들은 서로 대립하고 있답니다.

3.1. 성 비관주의



청소년의 섹스는 규제되어야 하는가?

성 비관주의자들은 성적 충동의 본질과 결과가 인간존재의 더욱 중요하고 고상한 목표와 열망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성적 충동이라는 힘과 요구가 조화로운 문명 생활에 위험을 초래할까봐 두려워한 것이죠. 그리고 성비관주의자들은 섹스가 다른 사람과의 적절한 관계나 타인에 대한 도덕적 대우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간성 자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성 비관주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청소년의 성관계를 부정하거나 억제하려는 노력은 비관주의와 맥락이 닿아있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성 비관주의가 성을 규정하는 방식에 대해 궁금한 점들이 생기지 않나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상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성적 충동 역시 인간의 관념에 속할 텐데, 성을 기준으로 관념을 위계화하는 것은 정당한지, 육체적인 행위일 뿐인데 어째서 그 행위에 더럽다는 가치판단을 덧씌우는 것인지 등등 말이에요.

3.1. 성 낙관주의

<성적 충동이 불쾌한 것이 아니라면, 성적 충동에 의해 이루어진 행동은 뭐든지 다 허용될 수 있을까?>

성 비관주의의 대척점에는 성적 충동을 불쾌하거나 저속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 성 낙관주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철학자로 플라톤(그의 작품 중 일부), 지그문트 프로이트, 버트런드 러셀 등 주로 현대 철학자들이 여기에 속하죠.

성 낙관주의자들은 인간의 성을 육체를 가지고 있고 동물과 유사한 우리 인간 존재가 갖는, 그냥 여러 차원들 중 하나인 무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성 낙관주의자들에 따르면 성이란 진화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우리의 지적 성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행복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성 낙관주의자들은 충동의 힘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칭찬합니다. 충동은 우리를 다양한 높은 형태의 행복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성 낙관주의자들의 주장을 따른다면, 누구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성관계를 맺든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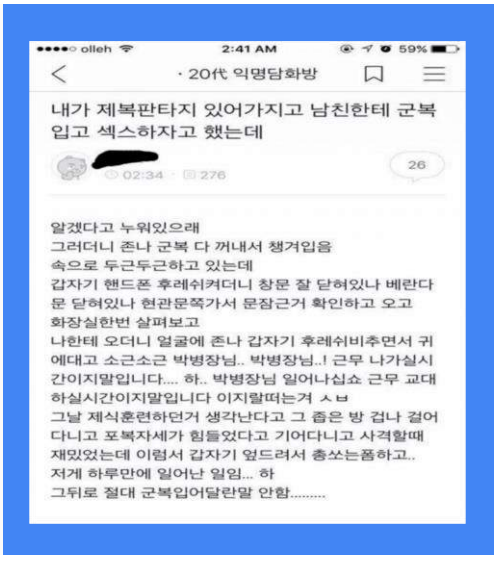
3.2. 좋은 섹스와 나쁜 섹스

"좋은 섹스"good sex와 "나쁜 섹스"bad sex는 도덕적, 쾌락적, 미적, 실용적, 합법적, 특히 섹스에서의 자연스러움을 의미할 수 있다 (Soble 2008 : 85–87; Soble, with Halwani 2017 : 8–16).

규범적 성철학자들은 섹스(성행위)를 도덕적, 쾌락적, 미적, 실용적, 합법적 관점에서 좋은 섹스와 나쁜 섹스를 구분하고자 했습니다. 좋은 섹스와 나쁜 섹스를 구분하는 철학적 관점은 우리 사회의 대중적 감수성이나 법적 기준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미적인 차원'에서 좋은 섹스와 나쁜 섹스를 구별해볼 수 있어요.

3.2. 좋은 섹스와 나쁜 섹스 - 미적 차원

<미적으로 좋은 섹스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비어즐리와 레빈, 싱어와 같은 철학자는 미적 섹스가 무엇인지는 철학적인 탐구가 필요한 사안이라 분명하게 규정할 수 없지만, 미적 경험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개념인 "통합", "일관성" 및 "완전성"과 같은 몇 가지 일반적인 미적 개념을 적용한다면 미적 섹스의 개념 규정을 시도해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미적 차원'에서 좋은 섹스란 일관된 섹스, 통일된 섹스, 당사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섹스, 아름다운 섹스를 뜻하며, 나쁜 섹스는 둔한 섹스, 단조로운 섹스, 역겨운 섹스, 지루한 섹스가 돼요.

이들이 규정한 좋은 섹스와 나쁜 섹스의 정의에 동의할 수 있나요?

3.2. 좋은 섹스와 나쁜 섹스 - 실용적 차원

<노콘 섹스는 실용적으로 좋은 섹스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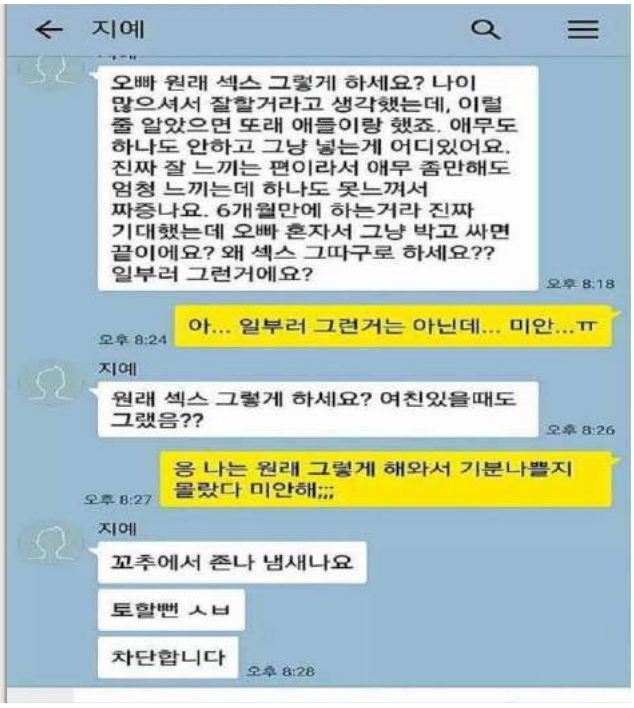
실용적인 차원으로도 좋은 섹스와 나쁜 섹스를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섹스가 실천적으로 또는 실용적으로 좋거나 나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용적으로 좋은 섹스는 나쁜 결과를 가져 오지 않거나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반면 실용적으로 나쁜 섹스는 나쁘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섹스를 말합니다.

예컨대 음란메시지를 보내서 자신의 경력을 망친 정치인, 안전을 신경 쓰지 않아 HIV 에 걸릴 위험이 있는 항문 섹스, 임신 위험이 있는 피임하지 않은 섹스, 체포 위험이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섹스는 모두 나쁜 결과를 야기하므로 실용적인 차원에서 볼 때 '나쁜' 섹스가 됩니다. 반면 실용적 차원에서 좋은 섹스의 예로는 회춘의 느낌이 들게 해준 섹스, 칼로리를 소모한 섹스, 원하는 임신을 하게 되었던 섹스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섹스가 되겠죠.

일상 생활에서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가령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섹스는 실용적 차원에서 좋은 섹스일까요? 장례식장에서 사람들 몰래 하게 된 섹스는 좋은 섹스일까요, 나쁜 섹스일까요?

3.2. 좋은 섹스와 나쁜 섹스 - 쾌락적 차원

<한쪽만 쾌락을 느낀 섹스를 좋은 섹스라고 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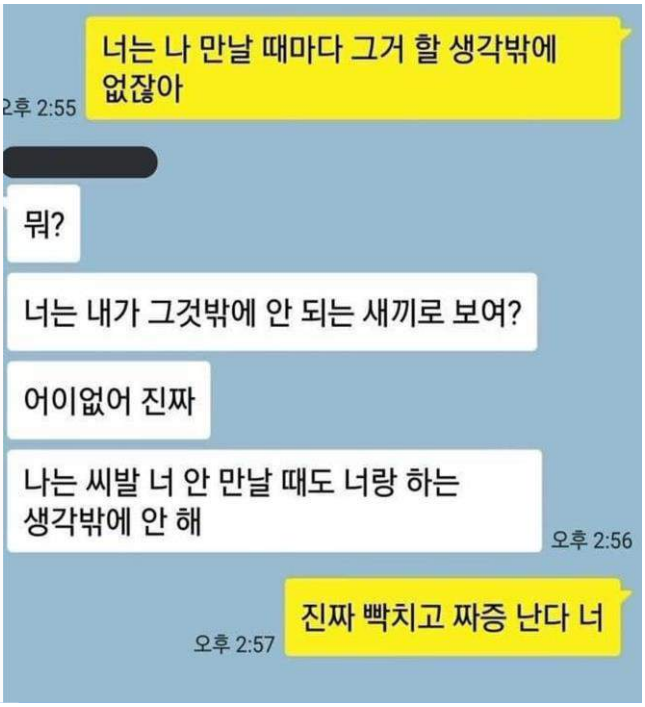


'쾌락적인 차원'에서 좋은 섹스와 나쁜 섹스를 한 번 살펴볼까요? "좋은 섹스"는 가장 분명하게 즐거운 섹스를 의미합니다. BDSM 과 같은 사례는 성행위의 고통이 쾌락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좋은 사례이기는 하지만, 성행위는 그것이 제공하는 쾌락이나 고통의 양과 강도에 따라 좋거나 나쁠 수 있어요.

쾌락적 차원에서 좋은 섹스는 당연히 만족스러운 쾌락을 제공하는 섹스일 거고, 나쁜 섹스의 적절한 예는 예컨대 원하지 않는, 심지어 꼴도 보기 싫은 사람과 정략 결혼을 한 여성의 성경험이 될 수 있겠어요. 상대방의 호흡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섹스 역시 쾌락적 차원에서 그리 좋은 섹스라고 볼 수는 없겠죠?

3.2. 좋은 섹스와 나쁜 섹스 - 도덕적 차원

<도덕적으로 좋은 섹스가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마지막으로 섹스는 '도덕적인 차원'에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좋은 성적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미덕이라는 키워드는 우리가 더 좋은 성적 행위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배려, 용기, 친절, 너그러움, 동정, 공정이라는 의미와 연결되는 미덕에 입각해 이루어진 성행위는 좋은 성행위로 판명날 수 있습니다. 미덕과 연관되는 각각은 단순히 성적 쾌락을 위한 활동(사랑이나 다른 긍정적인 감정과 연결되지 않는)과 양립할 수 있으며, 각각은 성적 욕망의 동기에 추가되거나 성적 욕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욕이 타인을 대상화한다면, 성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좋음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따라서 성행위는 상대방을 얼마나 대상화했느냐에 따라 상대방의동의에 따른 허용가능성 여부와 별개로 도덕적으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에 따르면 동의는 했지만 서로를 대상화하는 섹스는 도덕적으로 '나쁜' 섹스가 될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성욕과 절제 및 무절제와의 관계를 질문할 수도 있고, 행위자가 어떻게 성적 행동을 하고 그러한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평가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유덕한지 또는 부덕한지와 같이,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도 고려함으로써 좋은 섹스와 나쁜 섹스를 평가할 수 있어요.

예컨대 성욕과 관련하여 절제하는 섹스는 좋은 섹스가 될 수 있고, 무절제한 섹스는 나쁜 섹스가 될 수 있으며, 행위자의 성품에 관련해서는 덕이 있는 사람이 하는 섹스는 좋은 섹스로 보는 것도 가능하고, 덕이 없는 사람이 하는 섹스는 나쁜 섹스로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죠.

2 강

섹스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동의

오 경 미

(오픈넷)

1. 섹스(성관계)란 무엇일까?

섹스가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은 숨기거나 이야기 나누는 것을 회피하려 할까요?

섹스(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신체의 부위들을 자극해 원초적인 쾌락을 얻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보통 매우 사적인 행위로 여겨져 내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인간의 도덕, 윤리와 강하게 결부되어 있어 긍정적인 의미에서건 부정적인 의미에서건 사람들에게 아주 강렬한 감정을 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섹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보다 그 경험을 숨기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죠.

섹스를 터부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섹스에 대한 호기심, 섹스에 대한 욕망, 섹스 경험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강의를 통해 살펴보겠지만, 섹스(성관계)는 단순히 쾌락을 추구하는 신체적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신체적 행위”는 섹스의 아주 좁고 부분적인 정의입니다. 오늘 궁금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편하기도 하고 즐거운 행위인 것 같지만 두렵고 복잡해보기이도 하는 섹스에 관해 이야기해보면서 섹스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시키고 안전하면서도 즐거운 성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해요.

비록 오늘 강의의 주제가 어떻게 안전하고 즐거운 성관계를 맺을 것인가이지만, 세상에는 성관계에서 쾌락과 만족을 느끼지 않는, 성적 지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관계에 대한 욕망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자연스럽고 다양한 욕망 중 하나에요. 그렇다면 성적 관계를 통한 만족이나 쾌락 추구 역시 누구나 느껴야만 하는 당위적인 감정은 아닐 거에요. 오늘 강의에서 무성애는 다루지 않을 예정이지만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타인을 향한 성적 이끌림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이상하다거나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간략하게 덧붙입니다.

1. 섹스(성관계)란 무엇일까?

정해진 룰은 없어요.

누구와 성관계를 맺는지, 어떤 방식으로 성적 만족을 추구할 것인지 정해진 룰은 없어요.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성관계는 전형적으로 이미지화되어 있어요. 키가 크고 군살 없는 완벽한 몸매를 가진 젊은 남성과 젊은 여성이, 깔끔하게 정리된 근사한 침구가 있는 깨끗한 환경에서, 남성이 누워있는 여성의 위에서 여성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식은 우리가 미디어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성관계의 전형적인 이미지입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주로 갈등 없이 원만하고 행복하며 사회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없는 안정적인 부류의 사람들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려는 목적으로 미디어에서 재현되죠. 반면 깨끗하지 못한 환경에서 신체적 장애나 이상적이지 않은 몸매를 가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자세로 성관계를 맺는 장면으로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을 표상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일상의 성관계는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래의 그림에서처럼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고, 동성과 성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어요. 피부색, 나이, 장애의 유무 역시 성관계시 만족도의 척도와 무관해요. 성관계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난다면, 남성 성기와 여성 성기의 결합 만을 성관계라고 규정하는 협소한 성관계의 정의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요. 성적 관계는 입, 손가락, 질, 항문 등 모든 신체 부위를 사용해 이루어질 수 있고, 질성교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환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어요.

1. 섹스(성관계)란 무엇일까?

정해진 룰은 없어요.

우리는 성관계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성관계의 상대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혼자서도 성적 만족과 쾌락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앞의 이미지와 현재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성적 관계의 방법과 상대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할 수 있어요. 즉 우리는 성관계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든 성관계를 자유롭고 즐겁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야 해요. 단, 누군가가 폭력을 동원하거나 나의 약점을 악용해 성관계를 강압적으로 강제한다면 그건 성관계가 아닌 성폭력이니 얼른 그 관계를 끝내고 관계에서 벗어나야 해요.

폭력과 강압이 없었다는 전제 아래, 우리는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목적으로든 자유롭게 성관계를 맺고 즐길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임신과 출산을 위해 성관계를 하기도 하고, 단지 아주 맛있는 케이크를 먹거나 짜릿한 영화를 볼 때 느끼는 것과 같은 말초적인 쾌락을 느끼기 위해 성관계를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에게 성관계는 가장 친밀한 사이에서만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그 어떤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관계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도 합니다. 성관계를 하기 위해 우리는 애인을 사귀기도 하고, 클럽을 찾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혼자 나의 신체와 기구를 이용해 즐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2. 섹스(성관계)를 인권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기[1]

섹스를 할 수 있다는 것, 섹스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사회는 지금껏 성관계를 임신, 출산, 성폭력이라는 이슈와만 주로 연결해왔어요. 그래서 "성관계=위험한 것"이라는 등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성관계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없어 어떤 이(성소수자나 남성)은 과잉성애화 되었거나 도착적인 성적 지향성을 가진 이들로, 어떤 이들(여성)은 성관계에 대한 욕망이 전혀 없거나 성관계를 피해야 하는 부류로, 어떤 이들(청소녀)은 성관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거나 하지 않는 이들로 이미지화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은 성적 낙인에 찍혀 비난 받았습니다. 이런 탓에 우리는 성관계를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하고,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은 억제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타인과 신체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관계를 하기 위해 애인을 사귀기도하고, 클럽을 찾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서도 나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말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유롭게 어딘가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성관계를 갖기에 적절한, 청결하고 안전한 공간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믿을 수 있는 누군가와만 성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은 내게 발생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없는, 그래서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즉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성병, 임신 등 성관계 이후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할 능력의 유무를 함축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거나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적을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자신의 공간을 만들고, 의료시설을 이용하고 등등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인권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된 후에야 비로소 우리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성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뒤집어서 말한다면,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은 어쩌면 기본적인 인권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합당한 성적 담론도 없고, 그저 성적 욕망을 억제 당하기만 해왔던 청소년과 장애인이 경제적인 독립, 프라이버시 보장, 의료시설 접근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집단이기도 하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닐

[1] 이진희. 성적 시민권의 관점으로 본 발달장애인 성교육(2018). 한국장애학회 2018 년 추계학술대회. 한국장애학회. 111-121 쪽. 천자오루. (2020). 강영희 옮김.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들. 사계절. 장애여성공감. (2019). 어쩌면 이상한 몸. 도서출판 오월의 봄. 가와이 가오리. (2005). 육민혜 옮김. 섹스 자원봉사. 아롬.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 중 누군가가 어떤 이유에서든 성관계를 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면, 기본적인 인권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먼저 고민해 봐야해요

3. 섹스(성관계)의 본질은 관계 맺기

성적 관계 맺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즐거울 수 있어야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지**하여 서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때 성관계의 만족도는 높아질 거예요.

즐거운 성관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안전의 보장입니다. 성적 관계 맺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즐거울 수 있어야 만족스러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여자 모두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안정감이 확보될 수 없고, 불안함은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온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방해 요인입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으려는 사람과 나의 조건이나 배경이 동등하지 않다면 이 다름이 변수로 작용해 어느 한 쪽을 위험에 빠뜨리는 등 원치 않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삶을 살아가면서 나와 경제적 조건, 사고방식, 신체적 조건, 문화적 수준, 사회적 지위 등 모든 것이 똑같은 사람과만 만나고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고 낮습니다.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인권의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는 사회적 자원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하게 배분 받아요. 사람 사이의 사회적 자원의 차이는 권력으로 쉽게 이어져 관계에 위계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만들어진 권력과 위계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도록 상대방을 유도하거나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해요. 불평등한 사회적 자원을 문제시해야하는 이유입니다.[2]

그런데 친밀한 관계에서 형성된 권력은 아주 사소한 말과 행동으로도 유지될 수 있고, 친밀한 관계이니 문제를 삼기에도 애매한 경우도 많고, 약자 혹은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서 오는 즐거움과 호기심을 억압이나 폭력보다 우선시하거나 이를 역으로 자원화해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용해 쉽고 오랜 시간 관계가 유지되기도 합니다. 관계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형성되었을 경우에는 그 관계가 비대칭적이라고 해서 관계 맺기 전체가 폭력이라고 단정하기도 매우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또 법이나 제도는 물론이고 기존의 성교육은 폭력과 폭력이 아닌 행위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도식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이 구도에 포착되지 않는 행위는 폭력으로 규정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어떤 상황과 맥락에 놓여있는가, 나의 이와 같은 상황과 맥락이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따라 동일한 행위일지라도 새롭게 판단 내려지고 규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오히려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 관계를 맺을 때 위해 감소를 미리 인식해 벗어날 수 있는 능력치를 축적해 나가는 것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3]

---

[2] 이진희. 앞의 책. 장애여성공감. 앞의 책. 천자오루. 앞의 책. 가와이 가오리. 앞의 책.

[3] 이진희. 위의 책.111-112 쪽. 천자오루. 위의 책.

그렇다면, 처음 만난 상대와는 만족스러운 성관계가 불가능한 걸까요?

밀레나 포포바는 서로를 인격체로 존중하는 관계 맺기에 성공한다면 만난 시간과 관계의 깊이가 짧거나 길거나 상관없이 즐겁고 안전한 섹스라는 최종 목표에 방해받지 않고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해요. 서로가 경험치를 충분히 쌓아 나도 지키면서 상대도 존중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4]

[4] 밀레나 포포바. (2020). 함현주 옮김. 성적 동의. 69 쪽.

4. 즐거움과 안전 모두를 확보하는 방법은?

즐거움과 안전은 경합하는 사안이 아니에요.

안전한 섹스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콘돔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착용시 이질감이 있고, 이런 저런 감정적인 자극에 의해 남성 성기가 수축하면서 관계 도중 빠질 우려 등으로 우리는 콘돔을 즐거운 섹스를 망치는 부정적인 물건으로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병을 피하기 위해 관계시 콘돔을 사용하기를 바라는 한쪽의 입장과 성관계시 성적 쾌락 만족도의 감소를 이유로 콘돔 사용을 꺼려하는 다른 한쪽의 입장이 경합하는 구도로 그려져 "콘돔=안전"이라는 논리는 더욱 부정적으로 우리 머리에 각인되어 있죠.

결코 안전한 섹스와 성적 쾌락은 경합하는 것도, 서로 대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신체적인 고통이 발생하거나 섹스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성관계에 참여한 참여자 중 누군가가 그 상황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게 되었을 때 성적 쾌락이 감소되겠죠. 관계시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 상대방과 소통을 충분해 해야 한다고 흔히들 이야기하지만 왜 상대를 존중하고 소통을 해야하는지, 어떤 내용을 주고 받아야 존중과 소통에 성공할 수 있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접할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성관계에 참여하는 파트너(들)에게 내가 끼칠 수 있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위험이 무엇인지, 이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전제되어야 이런 대화가 가능할 거고, 대화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차이로 발생할 위험을 줄일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될 테니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성지식백과"에서 제안한 방법을 참고할 수 있겠어요.[5] "알아두면 쓸데있는 성지식백과"는 안전한 섹스와 즐거운 섹스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방법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자면 콘돔을 에로틱하게 느끼기, 윤활제 사용을 촉진하기와 같은 방법은 성관계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상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도구를 성적 쾌락을 극대화하는 매개체로 사용함으로써 안전과 즐거움을 모두 챙긴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조언과 제안을 참고해 우리도 우리만의 전략을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전략을 만드는 연습을 이따가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서로 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상쇄할 수 있는 방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관계 전 우리가 각자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들에 대해 조금만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해요.

[5] 몬스테라. (2021).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성지식 백과. 셰어.

4. 즐거움과 안전 모두를 확보하는 방법은?

나와 타인 사이의 차이를 생각해보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관계에 참여하는 이들의 배경이나 형편, 조건이 모두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동등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렵다기보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야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나와 상대방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인지해야만 합니다.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소하게는 어느 한 쪽만 만족하고 성관계가 끝날 수도 있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한 순간에 뒤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4. 즐거움과 안전 모두를 확보하는 방법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해요.

우리 사회는 성관계를 터부시하기도 하지만, 성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사람,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사람 역시 비정상적인 존재로 여깁니다. 그리고 흔히 사회나 또래집단은 우리가 성관계를 맺을 시기 역시 암묵적으로 정해주기도 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성관계를 보채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와 언제 성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누가 대신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준비를 마치고, 내가 원할 때가 바로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 만나게 된 날 성관계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만난 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성관계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니라 성관계에 참여하는 모두가 충분히 준비를 마친 상태로 성관계에 참여를 했느냐에요.

준비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쓸 것인지, 상대방은 성관계를 할 준비가 되었는지, 성적 경계심에 대해 서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성병과 임신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을 나 자신은 물론이고 상대방에게도 되물어야 해요.

4. 즐거움과 안전 모두를 확보하는 방법은?

준비가 될 때까지 상대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요.

섹스에 대한 대화를 부끄러워하는 사회에서 섹스와 관련된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것을 우리는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색하게 불편해하죠. 어떤 이들은 섹스에 대해 너무 자세하게 대화하는 것이 섹스에 대한 흥분을 감소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나와의 차이를 알아가는 과정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 가를 완벽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완벽하게 만족시켜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설득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차이를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4. 즐거움과 안전 모두를 확보하는 방법은?

성적인 소통 능력을 키워보아요.[6]

성행위를 부끄러워하는 사회에서는 성적인 솔직한 대화 역시 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부부로 살아온 관계에서조차도 성적인 대화는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상대방과의 솔직한 성적 대화는 성적 관계를 긍정하게 만들고, 성적 관계에 대한 긍정은 안전한 섹스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고 이 믿음은 즐거움을 증진시킵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소통 능력을 키워갈 수 있어요.

몇 가지 질문을 정해서 대화를 시작해보는 게 출발이 될 수 있죠.

저는 파트너와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대화나 자세, 서로가 싫어하거나 서로를 불쾌하게 만드는 표현이나 행동을 자주 교환하고 대화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그런 대화가 매우 편해졌고, 결과도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6] 니나 브로크만·엘린 시퇴켄 달. 앞의 책. (2020). 김명남 옮김. 질의 응답. 열린책들. 137-139 쪽.

4. 즐거움과 안전 모두를 확보하는 방법은?

나 자신과도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 보아요.

섹스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는 하지만 궁금함보다 두려움이 더 크다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찾고 대비책을 찾거나 해결책을 찾아 두려움이 없어지거나 해결될 때까지 성관계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위험에 처하게 되는지, 어떤 관계 속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지 알게 돼 상황 통제에 노련해질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불편해하고 무엇에서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끼는지를 잘 아는 것은 섹스의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방법이기도 해요. 당신을 흥분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알지 못하면 상대에게 정확하게 요구할 수 없게 되니 상대방이 위험을 줄여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기도 어렵게 되겠죠.

저도 처음에는 많이 어려워했는데, 관계와 상황을 점검하고, 현재의 관계와 과거의 관계를 비교해가면서 내가 편안했던 상황, 불편했던 상황을 비교해가면서 정리를 해보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관계의 종료나 관계의 진전 혹은 유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상대에게는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가 명확해 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이 과정을 거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4. 즐거움과 안전 모두를 확보하는 방법은?

거절당하는 것,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7]

거절하는 것은 어려워요. 더군다나 내가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어떤 것을 나에게 요구해왔을 때 내가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에게 실망할까봐, 나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게 될 까봐 우리는 상대방의 요청을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혹은 상대방을 향한 호감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거절하고 싶은 나의 마음을 부정하거나 거절할 시점을 놓치기도 합니다. 상대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거절을 당하는 것, 상대가 나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절을 하는 것도 거절을 당하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거절은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상대방이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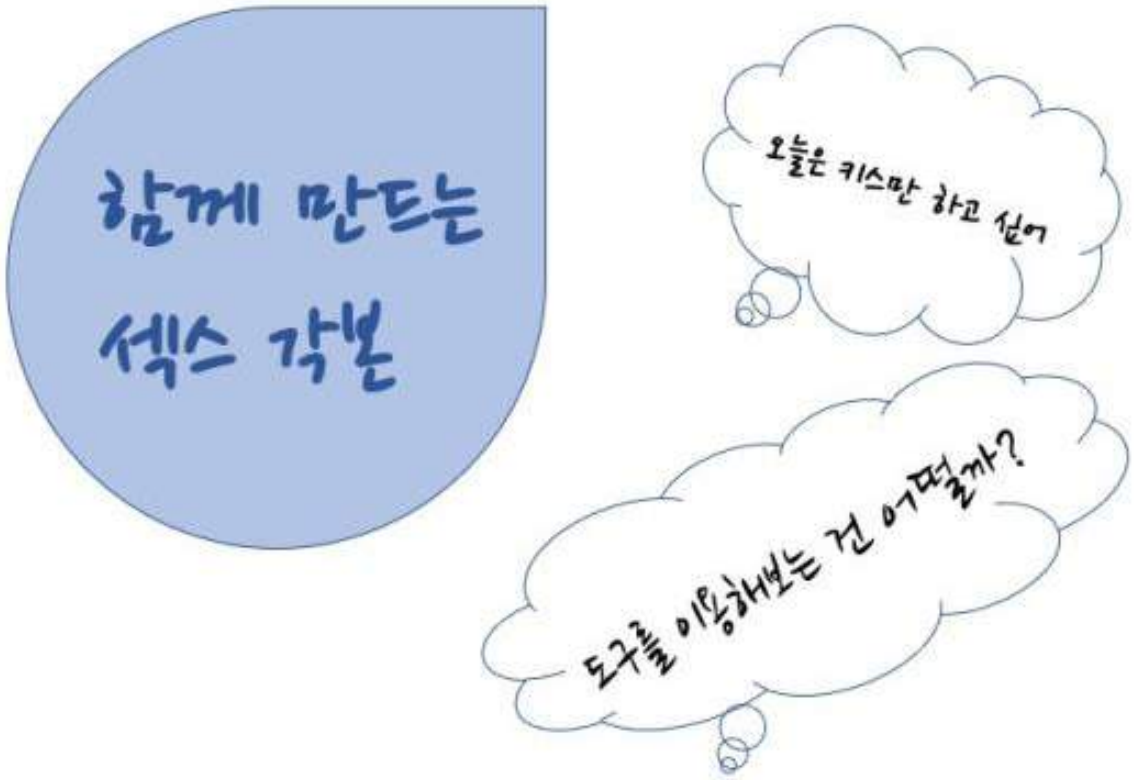
거절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어요. 섹스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동의를 했는데 막상 관계를 시작할 때가 되어서야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을 수 있어요. 막상 동의는 했지만 내가 만족할 만한 정도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게 되었을 수 있어요. 혹은 관계가 시작되었지만 주고받는 신체적 행위에서 불편함을 느껴서 당장 그만두고 싶을 수 있어요. 거절 당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거절의 원인을 내게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거절의 원인은 무수할 수 있어요. 나의 행동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할 필요는 있지만

어떤 이유이든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를 밝힌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 거절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장 즐거워야 할 섹스가 불쾌한 기억으로 남아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시술을 받는 등의 상처를 상대방에게 안겨줄 수 있습니다.

저도 제때 거절 의사를 밝히지 못해 지금까지도 계속 불쾌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있어요. 그렇지만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 더 이상 관계가 진전되지 못하게 중단한 경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험은 제가 저의 성적 권리를 처음으로 확보하려 시도했던 경험이었고, 그것이 성공적이었던 터라 저의 성적 주체성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었습니다.

막상 상황이 닥치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나를 압도해서 거절하기 어려워지거나 적당한 시기를 놓칠 수 있어요. 평소에 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누군가를 만나거나 성행위를 할 때 거절을 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해요.

[7] 플랜드 패런트후드. 앞의 책. 314-339 쪽. 니나 브로크만·엘린 시퇴켄 달. 앞의 책. 137-139 쪽.



성관계 각본은 그 관계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만들어가는 거에요.[8]

정해진 룰도 정해진 각본도 없어요.

만나서 술을 마셨지만 술만 마시고 헤어질 수도 있어요. 팔짱만 끼고 싶었거나 손만 잡고 싶었을 수 있어요. 포옹만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키스를 할 수도 있지만 키스만 하고 싶었을 수 있죠. 그냥 만나서 성관계만 가지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미디어는 데이트->술->키스->섹스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처럼 보여주지만, 어떤 행동이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준비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해요.

성관계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모두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모두 다른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 서로 다른 당사자들이 만나서 만든 각본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서로의 안전과 즐거움을 위해 우리는 섹스 각본을 함께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서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볼편해하는지를 함께 점검해보고 덧붙이고 빼가면서 만들어 가야해요.

각자 섹스 각본을 한번 만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8] 니나 브로크만·엘렌 스퇴켄 달. 위의 책. 117-170 쪽. 플랜드 패런트후드. 앞의 책. 286-339 쪽.

[참고자료]

가와이 가오리. (2005). 육민혜 옮김. 섹스 자원봉사. 아롬

니나 브로크만·엘린 스퇴켄 달(2019). 질의 응답. 열린책들

몬스테라(2021). 알아두면 쓸데있는 성지식백과. 성과 재생산 권리를 위한 센터 셰어

밀레나 포포바(2020). 성적 동의. 마티

이진희. 성적 시민권의 관점으로 본 발달장애인 성교육(2018). 한국장애학회 2018 년 추계학술대회. 한국장애학회

장애여성공감. (2019). 어쩌면 이상한 몸. 도서출판 오월의 봄.

천자오루(2020).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들: 장애인의 성과 사랑 이야기. 사계절

3 강

몸과 감각의 탐구

신 혜 선

(여성주의 성교육 활동가)

이번 강의에서는 나의 몸, 그 몸이 느끼는 감각에 대해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의 두 시간에서 주로 이론적인 강의를 했다면, 오늘은 직접 그림도 그려보고 결과물에 관해 서로 이야기도 나눠보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자, 모두 준비되었나요?

우리는 각자 다른 몸의 크기, 피부색, 생김 등으로 이루어진 신체를 기반으로 삶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감각은 눈, 피부, 혀, 귀, 코를 통해 들어온 외부의 자극을 뇌가 인지하면서 이루어지는 신체적인 반응이 이루어집니다.

성적 반응은 이 모든 감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으니, 오늘은 성적 반응을 가장 확실하면서도 강렬하게 유발하는 신체 기관인 성기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보려고 해요.

우리의 신체 중 가장 사적인 기관이고 사회적으로 터부시되어온 신체 부위이기도 해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깨뜨려보는 시작 단계로 오늘 강의를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워크숍

<나의 '몸' 그리기 >

**내가 인지하고 있는 나의 몸을 그리시면 됩니다.
실제와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의 몸을 그려주세요.
다만 자연의 모습으로~

먼저 나의 몸을 한번 그려볼까요?

내가 느끼고 있는 나의 몸을 그리시면 됩니다.

실제와 똑같이 그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떠올리고 있는 나의 몸을 그려주세요.

낯선 장소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몸을 그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쉽지 않을 거에요.

하지만 그런 낯섦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평소에 내가 나의 몸을 얼마나 외면하고 지내왔는가를 반추하는 기회도 분명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잘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릴 필요도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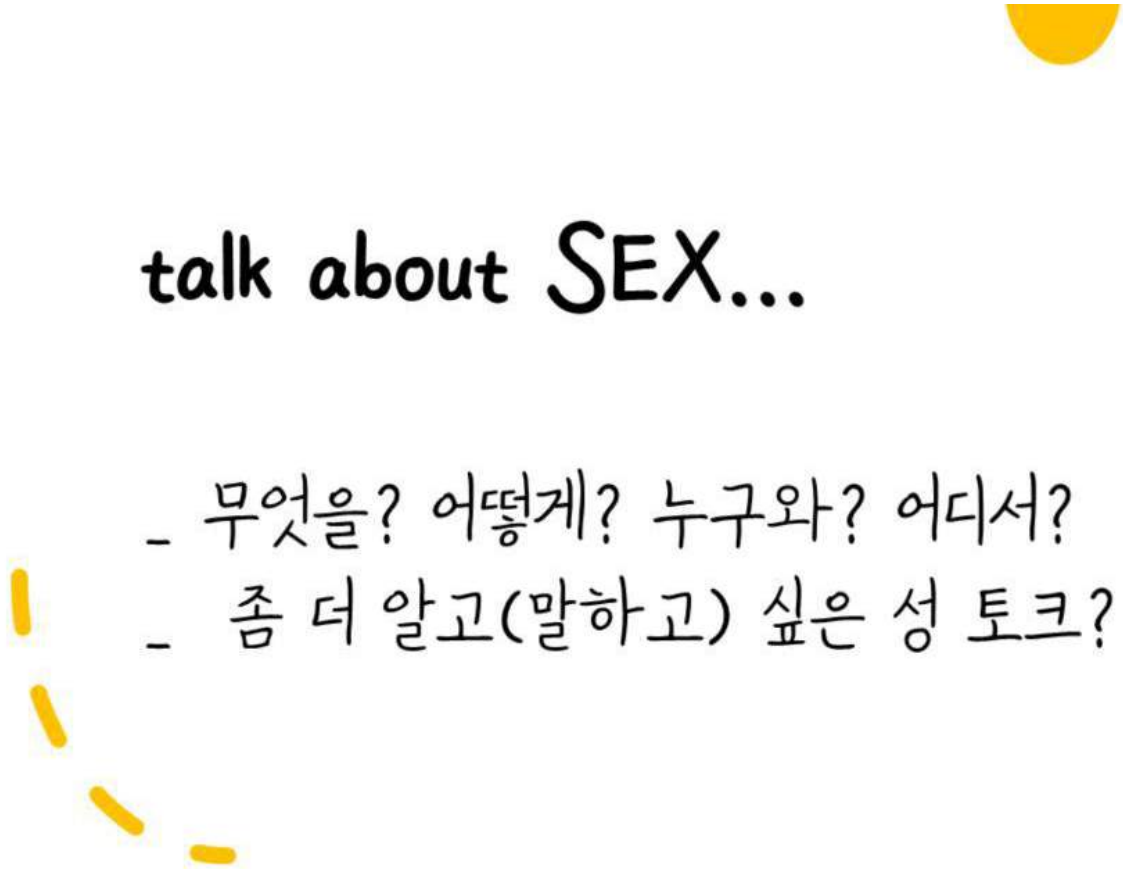
나의 몸을 그리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사람의 몸을 그려봐도 좋습니다.

다만, 벗은 몸을 그려주셔요.

<완성한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어떠셨어요?

혹시 멈칫하거나, 주저했다면 왜 그랬는지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공유해줄 수 있나요?



옷을 입지 않은 나의 몸을 그린다는 것, 심지어 그것을 타인과 공유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느껴보셨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나아가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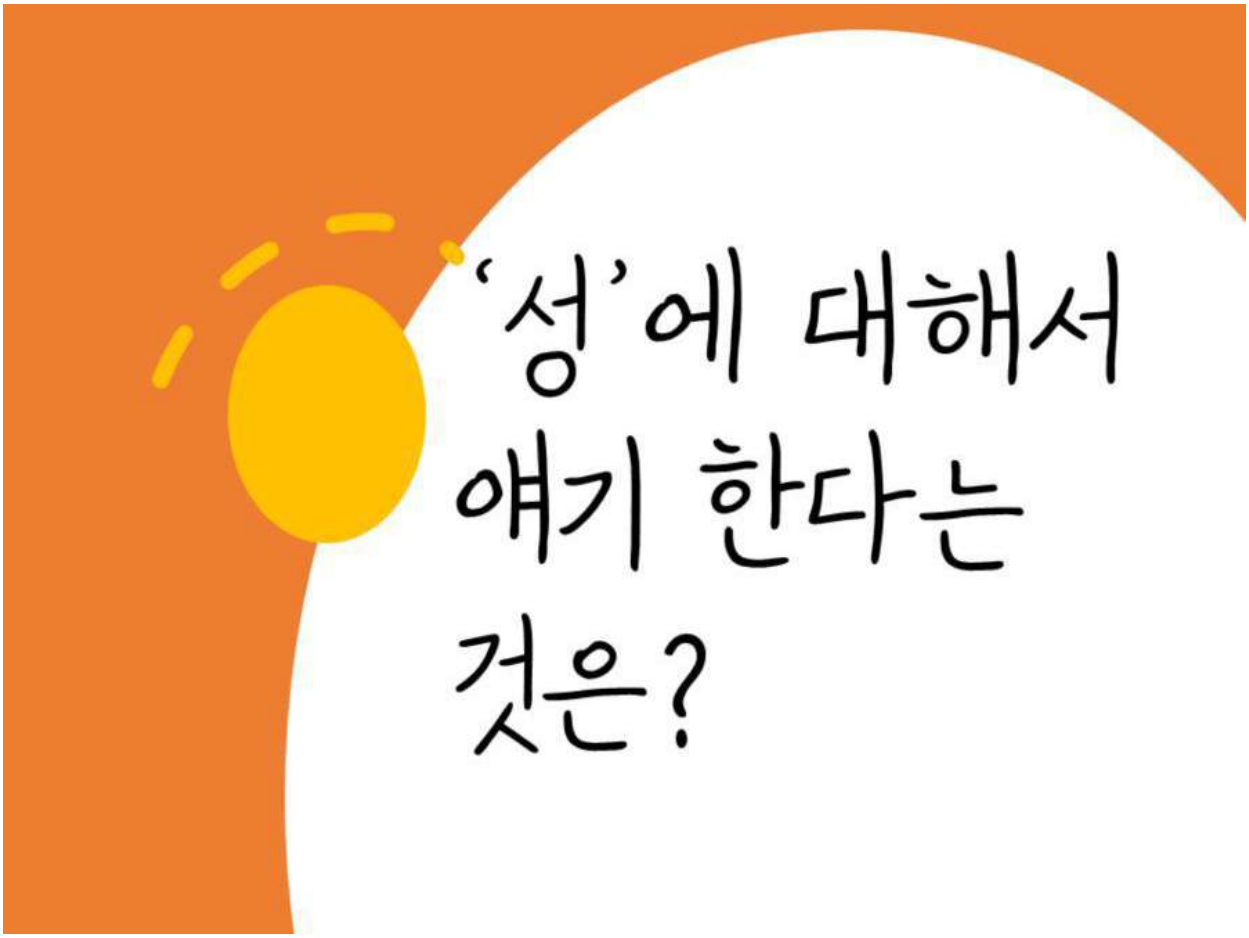
여러분들은 평소에 성애 대한 이야기를 언제/어디서/어떻게 누구와 나누나요?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강사 개인의 구체적인 경험을 수강자들과 나눈다.)

우리가 성에 관한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수 없다는 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타인과의 소통 경험이 부족해서 일까요? 아니면 주제가 민감해서 였을까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되돌아본다면, 둘 모두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주제가 민감하기도 하고, 이렇게 민감한 주제는 아무리 친밀한 사이에서도 속 시원하게 나누는 계기도 부족하고 그러니 그런 경험이 너무 없었던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이라는 주제는 민감하고 불편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나는 물론이고 타인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한, 어쩌면 실용적인 주제이기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성이 감정, 관계, 감각, 신체, 욕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만 앞의 시간에서도 배웠듯이 성은 경제적/신체적/문화적/사회적 차이 등 신체를 둘러싼 환경과 나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과 성은 연관되어 있어서 성과 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것들을 배우고 생각해보면서 우리는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기도 합니다.

워크숍

<'성기' 그리기>

**먼저 나의 성기를 스스로 탐색해 봤던 기억이 있는지 떠올려보세요.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성기를 정성껏 그려봅시다.
"나는 네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

자. 두 번째 워크숍으로 넘어가볼까요?

우리 한 단계 더 나가보기로 해요.

나의 성기 모양을 그려봅시다. 저도 함께 그릴게요.

평소 관심을 두지 않았고, 성기를 성행위에 활용하는 신체의 일부, 즉 성기를 성적인 기관으로만 소비했던 우리에게 성기를 그려본다는 것은 나의 몸을 그리는 것보다 훨씬 낯설고 쉽지 않은 도전일 거에요.

하지만 성기를 그려보면서 나의 성기 역시 팔이나 눈, 귀, 다리처럼 평범한 신체 부위로 인식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도화지와 12 색의 오일파스텔, 연필이 있어요. 색감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완성한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릴 때의 불편한 감정, 체모, 성기의 모양, 성기의 색감 등 다각적인 각도에서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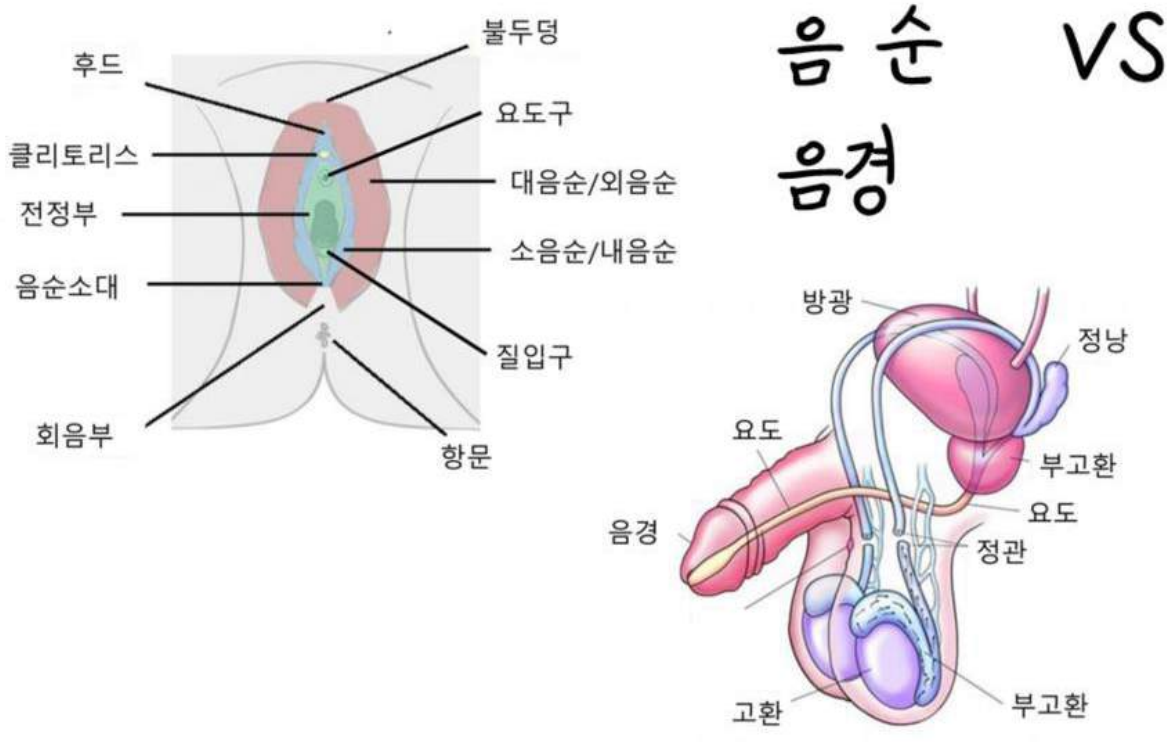
여성의 성기도 남성의 성기도 모두 모양도 크기도 천차만별입니다.

크기에 상관없이 모양은 성적 쾌락의 정도나 만족감과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건 사회적 통념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통념에 설득당하곤 하죠.

그리고 성기의 크기나 모양으로 쉽게 성적 낙인을 찍고 비난하는 문화가 전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성기의 모양이나 크기는 타고난 신체적 특성이라 "이상적인" 크기나 모양이 있을 수 없지만 이상적인 모양이나 크기의 성기를 전제하고 그것을 갈망하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성기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낙인을 찍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의 성기 모양에 대한 낙인이 남성의 성기에 대한 낙인보다 훨씬 강하죠. 색이 검거나 음순의 모양이 크면 성경험이 많은 거다 라는 등등의 낙인 말이죠. 이런 낙인의 문화는 자본주의 시스템과 결합하면서 남성의 성기는 크게 조형하거나, 여성의 성기는 모양을 축소하고 색을분홍빛으로 만드는 시술이 권장되기도 합니다.

여성 성기의 모양은 성경험의 횟수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려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죠. 그러니 나의 성기가 어떻게 생겼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끼도록 해요.

우리 상대적으로 소외 받았던 여성의 성기에 대해 조금만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까요?



여성의 성기는 음순이라 불리고 대음순, 소음순, 요도구, 클리토리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확한 명칭으로 불리지 못했어요. 당연히 성기의 기능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도 삭제되어 왔죠. 성교육 때 남성의 성기와 함께 제시가 되었던 것은 음순이 아닌 포궁(자궁)이었어요.

여성의 주체적 성적 욕구를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여성의 성기는 재생산을 위한 신체의 기관으로만 보려했던 낡아빠진 통념이 여성의 성기를 있는 그대로 명명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여성의 성기를 포궁이나 자궁이 아닌 음순으로 불러 주기로 해요!

내 이름을 불러줘

“Call me by my name”

성을 잘 안다는 것, 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것에 대해서 ‘순수하지 못한, 정숙하지 못한, 조금은 함부로 일 것(대해도 될 것) 같은 등의 사회적 부정적인 시선이 있고, 이 부정적인 시선은 여성에게는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성에 대해 안다는 것, 배운다는 것, 경험한다는 것은 나는 물론이고 상대에 대해 알고 이해해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한 노력입니다. 덧붙여 성기를 명명함에 있어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이름을 낯설지 않게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는 성적 감각을 일깨우기 위해 몸 탐색을 해보려고 해요. 몸 탐색은 성적 쾌감을 느끼는 여러 신체부위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강의에서는 남자는 물론이고 여자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여겨지고 있는, 우리가 모두 알고는 있지만 말하기도 선뜻 행하는 것도 주저하게 되는 '자위'를 매개로 생각을 나눠보려고 해요.

이 시간을 통해 자위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안전하고 오롯이 내 스스로가 나를 위한 성적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해보고, 그러면서 성적인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 보는 기회를 만들어보기로 해요.

성적 감각찾기_자위

** 여성의 자위

남성의 자위

평소 자위에 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서로 나눠볼까요?

<자유로운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자위라는 행위는 성별 구분없이 도착적이고 비정상적인 그래서 강하게 금지되는 행위로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모두에게 금지되는 행위로 고착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남성의 자위행위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여성의 자위행위는 그간 매우 부정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조금씩 여성의 성적 욕망과 자위에 대해 언급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죠. “여성도 자위한다,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성적으로 즐겁게 해주는 것!! 이것이 제가 내린 자위의 한 줄 정의입니다.

자위는 특정 성별의 전유물이 절대 아니에요.

자위에 대한 흔한 편견

자위를 많이 하면 성 감각이 둔해진다? 자위를 많이 하면 성기가 변형된다? 자위를 생각하거나 자위를 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성적 욕구를 가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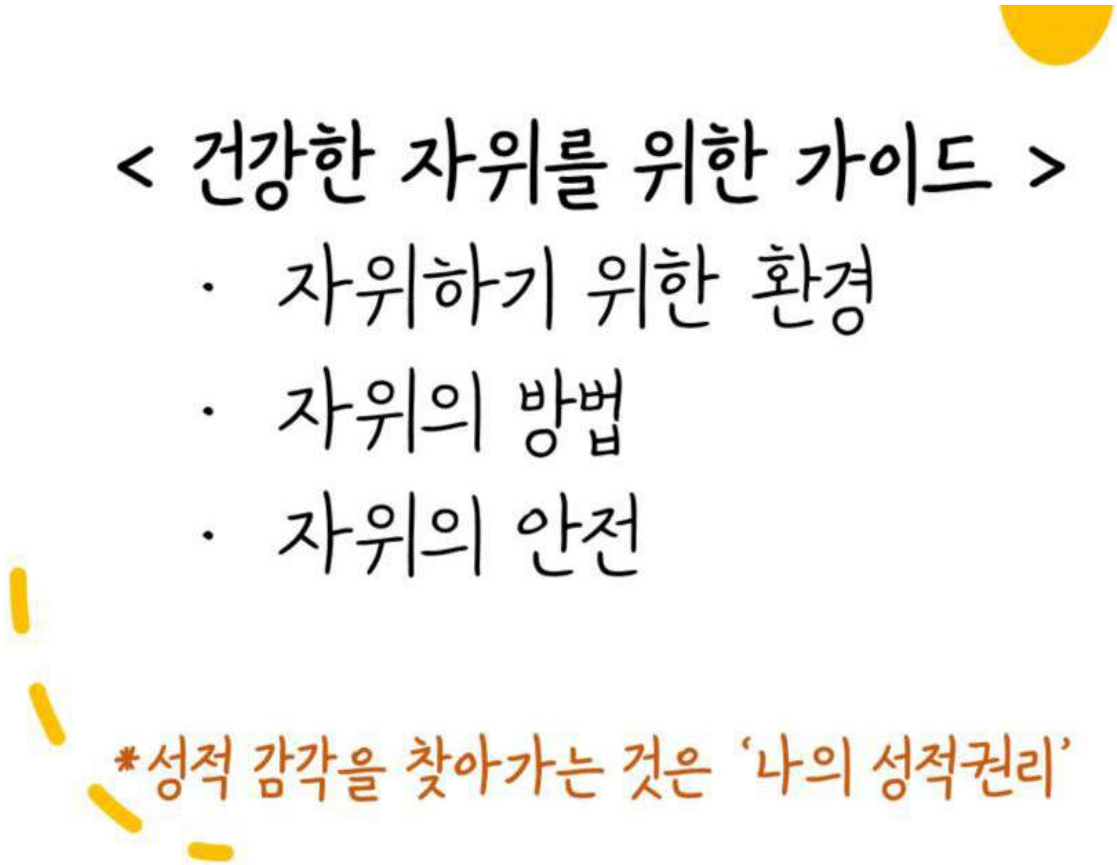
자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부정적 의견일 거에요.

이런 의견에 저는 반문을 하고 싶어요.

과연 올바른 성기의 모양, 이상적인 성기의 모양은 무엇일까요? 누가 그렇게 정했을까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활발한 성관계를 맺는 것이 성 감각을 높게 유지시켜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요.

성적 욕구 추구를 성적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개인의 자연스러운 의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어 성적 욕구 추구를 비정상으로 몰아 낙인을 찍고 비난하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확산되어 가고 있어요.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라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자위는 나 혼자 스스로 성적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몇가지 에티켓을 나눠보기로 해요. 오늘 나눈 에티켓은 정답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에티켓을 토대로 각자의 적절한 방법을 탐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위하기 위한 적절한 환경은 나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개인적인 행위인 만큼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겠지요. 더불어 타인에게 그 상황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성적 욕구 해결을 위해서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게 되는 것은 성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위를 통한 내 몸의 감각을 탐구해보고자 했는데 정작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 사실 자위에 대한 방법이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정답은 없습니다. 가장 쉽게 시도 할 수 잇는 방법은 나의 신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몸을 조심스럽게 만졌을 때 특별하게 감각이 느껴지는 곳을 찾으며 내 몸의 성적 감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몸의 탐색을 하고자 한다면 sex toy 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sex toy 을 유통하는 방식이 음지화 되어 부정적 낙인이 강했으나 지금은 디자인 개선 및 소비자의 다양화로 거부감 없는 sex toy 종류가 대중적으로 유통되고 있답니다.

(교육참가자 연령에 따라 선택적 언급) sex toy shop 을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일부 소개해 드린다면 여성용 자위기구는 바이브레이터가 있습니다. 진동 및 흡착 기능으로 클리토리스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성적 감각을 자극합니다. 남성의 자위기구 피스톤 머신이 있습니다. 발기 된 음경을 자극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청결위생과 안전을 고려하며 사용하는 것은 기본 수칙이 될 수 있겠지요. 간혹 sex toy 를 구매하는 것이 (구매과정이든 비용이든)부담스러워서 다른 일상의 물건으로 자위를 한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무엇으로 어떻게 하든 정해진 것은 없지만 신체가 훼손되거나 위생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기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개인에 따라 다소 과도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선 강의와 또는 이번 시간에서도 언급했던 사회 속의 성문화에서 성이라는 주제가 긍정적으로 회자되지 못했던 분위기에서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과 생각을 열고 '나의 섹슈얼리티/성적욕망/성적감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직되지 않고 조금은 편안하게 정보를 탐색하고 받아들여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의 성적 욕망/감각을 잘 알게 되면 내가 무엇을 원하고, 원치않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나의 성적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인과 성적 교감이 이루어질 때, 내가 나를 잘 알고 있으면 정확한 요구가 가능하지만, 내가 나를 잘 모를 때는 상대가 나에게 행하는 것이 내게 좋은지 나쁜지 생각하는 사이 그 상황은 끝나 버릴 거에요.

아무래도 실질적 정보를 나누다보니 몽의 탐구 과정에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자위를 통해 또는 타인과의 교감을 통해 성적 감각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 자극받는 것에 대해 가능한 상상은 주로 대중매체로부터 전달 받은 이미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재현 해보기도 하고 요구받기도 합니다. 사실 그것들은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능하다며 나만의 섹슈얼리티 표현이나 성적 감각의 카타르시스를 표현법이 각자 있으면 덧없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하지 않기를 당부하는 것은 영상 또는 이미지로 나의 성적행위의 기록을 남기고 타인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신뢰의 관계라고 생각해서, 추억의 의미로서로에 대한 감정의 증거자료 등을 목적으로 기록물을 주고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관계가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성적행위의 기록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자 경험하는 다양한 성적인 경험은 철저히 개인의 것으로 잘 보호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4 강

즐겁고 안전한 섹스를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것들

박 슬 기

(성교육 활동가)

즐겁고 안전한 섹스를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것들

I.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1]

1. 피임종류에 따른 피임법

① 콘돔

구분	내용
피임 원리	남성콘돔은 가장 보편적인 피임 방법입니다. 성관계 직전, 여성의 성기에 삽입하기 전 발기한 남성의 성기에 착용하여 정자가 여성의 자궁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합니다.
사용법	- 사용 전 콘돔의 유통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콘돔은 잘 찢어지기 때문이죠. - 음경이 질 입구에 닿기 전, 여성의 성기와 남성의 성기 결합 전에 콘돔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성감이 떨어진다고 성기결합(삽입)섹스를 하다가 사정 직전에만 콘돔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럴 때는 조절이 힘들 뿐더러, 사정 전에도 남성의 성기에서 분비되는 쿠퍼액에 정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완벽한 피임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기 결합 전에 콘돔을 남성의 성기에 씌워야 합니다. - 콘돔을 씌운 후 끝 부분을 살짝 비틀어 콘돔과 성기 사이에 남아있을 수 있는 공기를 모두 빼 콘돔을 성기에 완벽하게 밀착시킵니다. 정액을 담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잡아서 공기를 빼지 않으며 나중에 사정할 때 콘돔이 터질 수 있습니다. - 사정 후 발기가 풀리면 여성의 질 내에서 콘돔이 빠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정액이 질 안으로 유입될 수 있으니 발기가 풀리기 전에 콘돔의 입구를 잘 잡아 정액이 흐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뺍니다. - 콘돔 사용 전 끝을 묶어보아 구멍이 뚫려 있지는 않은 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점	- 콘돔의 또 다른 장점은 HIV 를 비롯해 각종 성매개 질환도 함께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는 것 역시 큰 장점입니다. -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주의점 / 부작용	- 유효기간 및 찢어진 곳을 매번 사용 전 확인해야 합니다. - 성기결합 전에 착용하지 않을 경우 쿠퍼액에 의해 임신할 수 있습니다. - 콘돔은 정자를 물리적으로만 차단해주는 역할만 하므로 성관계 중 콘돔이 찢어지거나, 콘돔을 잘못 착용하였을 경우 정자가 질 내로 유입되어 임신할 수 있습니다. -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1]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젠더건강팀 .(2016). 우리가 만드는 피임 사전

구입방법 / 비용	- 지하철, 약국, 온라인매장, 오프라인매장, 편의점, 대형할인마트에서 판매합니다. - 라텍스 또는 폴리우레탄 등 재질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합니다. 또 두께, 돌기가 부착된 종류도 있으며, 사이즈도 다양합니다. - 5 백~5 천원(1 개당)

② 경구 피임약

구분	내용
피임 원리	- 호르몬 성분의 피임약으로 매일 복용해야 합니다. 호르몬을 조절해서 배란을 억제하고 배란 후 난자가 자궁벽에 착상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 자궁경부의 점액을 끈끈히 해서 정자가 자궁을 통과하는 것을 어렵게 해 수정도 막아주는 원리입니다. - 다양한 종류의 약(여러 종류의 피임약 성분과 상품명)이 있고 각각의 성분, 주의할 점, 복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용법	- 매일 일정한 시간에 복용해야 합니다. 21 일간 약을 복용하고 7 일간은 약을 먹지 않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는 휴약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잊어버릴 가능성을 고려해 그 기간 동안 약 성분이 없는 위약을 복용하도록 구성한 패키지도 있다고 해요. 휴약기로 접어들면 며칠 내로 생리가 시작됩니다. 복용 기간과 휴약기간을 잘 지켜야 하므로 약을 얼마나 먹었는지, 복용 주기가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통 약 포장 패키지에 요일이나 날짜가 표시되어 있거나 달력 모양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좋은 점	- 작은 알약 복용으로 피임이 가능하니 간편합니다. 콘돔처럼 성관계 도중에 피임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성관계의 흐름을 끊을 필요도 없어요. - 피임 이외의 방법을 위해서 복용을 하기도 해요.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이므로 여드름을 줄이거나 생리 전 증후군 증상, 생리통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 산부인과에서 처방해주기도 합니다. 난소암, 골다공증, 빈혈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주의점 / 부작용	- 콘돔처럼 성기의 접촉을 막지는 않으니 성매개질환 예방 효과는 없습니다. - 약을 매일 같은 시간에 반드시 복용해야 하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 성욕이 감소할 수도 있다고 해요. -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35 세 이상 흡연을 하는 사람에게는 피가 응고되어 생기는 혈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니 흡연을 하는 35 세 이상의 여성은 사용하지 않거나 복용을 원하면 산부인과 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합니다. - 아주 드물게 협심증, 고혈압, 뇌졸중, 간 종양, 담석 등의 부작용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 주기에 따라 약이 달라지는 다상성 피임약의 경우 약 순서를 바꿔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포장에 복용 순서가 화살표 모양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자세한 복용법을 알기 위해 패키지 설명서를 꼭 읽습니다. - 다음 번 약을 살 때 기억하기 위해서나 다른 약을 복용하며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피임약 포장 상자를 보관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구입방법 / 비용	- 약국에서 본인에게 맞는 약을 찾아볼 수도 있고, 의사와 상담한 후에 처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피임약 1 개월용 패키지당 가격은 1~3 만원 정도입니다. - 피임약 처방을 위한 진료비용과 피임약 구입 비용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요. 의사 상담 후 약을 처방 받고자 한다면 참고하세요.

③ 피임주사(DMPA)

구분	내용
피임 원리	- 피임주사는 상품명인 '사야나' 또는 '데포' (Depot medroxyprogesterone acetate)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포는 약품 이름으로 피하 주사를 의미한다고 해요. 프로게스틴 성분이 배란을 억제하고 자궁경부의 점액을 끈끈하게 해서 정자가 통과하기 어렵게 합니다.
사용법	- 산부인과에서 임신여부를 확인한 후 주사를 처방 받게 됩니다. 1 회 주사에 최대 3 개월의 지속효과가 있다고 하니, 12 주(최대 14 주 이내)가 지나면 다시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12 주가 지난 날로부터 2 주가 결과하면 피임효과가 떨어져 임신이 가능한 몸상태로 돌아갑니다. 14 주가 지난 후 다시 주사를 맞고자 한다면 병원에서 또 다시 임신여부를 확인한 후 주사를 맞게 됩니다.
좋은 점	- 약을 복용하거나 콘돔을 착용하는 것처럼 번거롭지 않습니다. 주사를 맞고 3 개월 동안은 전혀 피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에스트로겐을 사용하면 안 되는 여성이나 에스트로겐으로 인한 피임약 부작용이 싫은 여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직후 수유 중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점 / 부작용	- 피임을 중단하고 임신이 가능해지는 시기까지의 기간이 예상보다 길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마지막으로 주사를 맞은 후 12 주 후부터 다시 임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에 따르면 다시 임신할 수 있기까지 9 개월이 걸린 사람도 있다고 해요. - 부정출혈(특히 주사를 맞은 첫 6-12 개월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리가 아닌 때에 하혈을 할 수도 있고, 생리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 식욕이 증가하고 체중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골감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드물게 성욕이 감소하거나 우울감, 두통, 탈모, 어지러움, 구역질, 유방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2-3 주기(6-9 개월)간 기다리다 보면 몸이 적응하여 부작용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6-9 개월이 지나도 부작용이 지속된다면 다른 피임법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정출혈, 혈전 색전증의 위험이 있거나 간질환이 있을 때는 사용해선 안되므로 반드시 의사의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구입방법 / 비용	- 1 회 주사에 6-8 만원입니다. 진료, 주사 모두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④ 임플라논 (피하 이식장치)

구분	내용
피임 원리	- 작은 성냥개비 모양의 플라스틱(4cm×2mm)을 팔 위쪽의 안쪽 피부 바로 아래에 삽입합니다. 장치에 들어있는 에토노게스트렐 성분이 프로게스테론 역할을 해 뇌의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에 작용해 배란을 억제합니다. 한번 이식하면 3 년간 피임효과가 유지됩니다.
피임효과 / 신체변화	- 생리 시작한 날부터 5 일 이내에 이식합니다. 이식한 날부터 바로 피임효과가 생깁니다. 생리 시작한 날로 5 일 이내에 이식하지 못했다면 생리주기 한 번 동안은 다른 피임법을 같이 해야 합니다. - 이식한 이후에는 생리주기가 불규칙하게 변하거나 비정기적인 출혈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작용의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며, 3-4 개월에서 길면 6-12 개월까지의 적응기간 이후에는 괜찮아집니다. - 삽입에 따른 부작용이나 몸의 변화가 걱정된다면 3 개월간 유지되는 주사형 프로게스틴을 먼저 시도해 보고 임플라논 삽입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임플라논을 삽입할 때 통증이나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제거한 후에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사용법	- 산부인과를 방문하셔서 임플라논을 시술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일반적으로 방문 당일 시술을 받을 수 있고, 하루 정도 샤워를 피해야 한다는 것 외에는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팔 안쪽 팔꿈치의 8-10cm 위쪽 지점에 국소마취를 하고 임플라논을 삽입합니다. 이후 멍이 들지 않게 압박붕대를 24 시간동안 감고 있습니다. - 임플라논을 제거할 때도 역시 국소마취를 하고 작은 절개를 통해 빼냅니다. 임플라논을 삽입할 때는 1 분 가량, 제거할 때는 3 분 가량의 시간이 걸립니다. 제거 후에 새로운 임플라논을 바로 삽입할 수 있어서 피임 효과가 끊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점	- 한 번 삽입하면 3 년간 피임 효과가 지속되고, 제거하면 곧바로 임신이 가능합니다. -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에스트로겐 부작용(유방통)도 없으며, 생리량이 줄어들고 생리통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해요. - 고혈압, 당뇨병, 비만이거나 흡연, 수유 중이라도 시술 받을 수 있는 안전한 피임방법이라고 해요.
구입방법 / 비용	- 시술 비용은 30-40 만원 정도입니다. 다른 피임방법처럼 장치 구입 비용과 시술 비용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⑤ 자궁 내 장치(intrauterine device, IUD) / 구리 루프와 호르몬 루프

종류	구리 루프	- 구리 루프는 자궁 안에 삽입하는 장치로 플라스틱 몸체에 감긴 구리에서 구리 이온을 방출해 자궁 내 염증 반응을 유도합니다. - 무균성 염증 반응을 일으켜 질 내부의 점액을 변화시켜 몸속에 정자가 들어와도 나팔관까지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수정이 되더라도 자궁 내벽에 착상되는 것을 막는 원리입니다. - 구리 루프의 피임 성공률은 98%로 매우 높다고 합니다. - 한번 시술하면 피임효과는 4 년정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호르몬 루프 (미레나, 제이디스, 카일리나)	-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는 호르몬 루프는 미레나, 제이디스, 카일리나 세 가지가 있어요. 루프를 자궁 내 시술하면 3~5 년간 루프에 들어있는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자궁 내에서 방출됩니다. - 호르몬이 자궁경부 점액의 점도를 증가시켜 정자의 이동을 억제하고 자궁 내막을 얇게 해 수정을 막는 원리라고 해요. - 구리 루프와 다르게 염증의 위험성이 적습니다.
시술 방법		- 루프는 질을 통해 자궁으로 삽입되며, 시술은 10 분 정도 소요됩니다.
부작용		- 시술 후 첫 수개월 내 월경 과다, 생리통, 불규칙적인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구리 루프의 경우 생리양이 늘어날 수 있고, 시술 후 자궁 내 세균성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임신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호르몬 피임법을 고려하는 게 좋아요. - 시술 후 질 분비물이 증가한다면 자궁경부염이나 질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호르몬 루프(미레나)의 경우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의 부작용으로 두통, 유방 압통, 여드름, 하복부 통증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시술 후 3~6 개월 후에 대부분 사라진다고 해요. * 이 밖의 개인 건강 상태에 따른 부작용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도록 합니다.
좋은 점		- 매일 약 형태로 먹지 않아도 피임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똑같은 시간에 약을 복용하는 게 어려운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 한 번 시술하면 3~5 년 정도 피임 상태가 지속됩니다. 시술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도, 매달 드는 생리용품 비용을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 루프를 제거하면 바로 임신도 가능합니다. - 수유 중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혹 수유 중에 생리를 안 한다는 이유로 피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유 중에도 임신 가능성이 있으니 수유 중 임신을 원치 않는다면 피임에 대한 확실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입방법 / 비용		- 자궁 내 장치(IUD)의 평균 가격은 20~35 만 원 대입니다. - 구리 루프는 10-15 만원, 호르몬 루프는 30-35 만원 정도입니다. - 호르몬 루프 중 미레나는 한 번의 시술로 5 년간 피임효과가 지속되며, 비용은 30-40 만원 정도입니다의. 제이디스의 경우 1 회 삽입 시 3 년간 효과가 지속되며, 19-25 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루프와 시술은 치료의 목적이 아닌 이상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비용 전액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⑥ 페미돔

카테고리	내용
피임원리	- 길이 17~18cm 정도로 니트릴이라는 합성 물질로 만들어진 여성용 콘돔입니다. - 남성의 성기에 착용하는 콘돔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 질 안쪽에 삽입해 여성의 질 내부를 감싸도록 고안된 장치로 성관계 중 남성이 사정을 하더라도 정자가 여성의 몸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줍니다.
사용법	① 눕거나 양 무릎을 벌리고 앉은 자세로 안쪽 링을 좁게 쥐고 삽입합니다. ② 다른 손으로는 질 입구를 피부에 펴고 안쪽 링을 질 내부로 삽입합니다. ③ 페미돔 내부에 손가락을 넣어서 질의 안쪽으로 깊게 밀어줍니다. ④ 삽입 후 페미돔의 바깥 링과 몸체의 일부가 질 외부에 남는다면 제대로 착용된 겁니다. ⑤ 제거할 때에는 정액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바깥쪽 링을 비틀어서 살짝 당겨주면 됩니다. * 주의점 - 찢기지 않게 조심하며 안쪽 링을 엄지와 검지로 잡아서 길고 좁은 모양으로 만들어, 삽입하기 쉽게 합니다. - 손가락으로 안쪽 링을 잡은 채로 최대한 질 깊숙이 삽입합니다. - 가운뎃손가락을 페미돔 안으로 넣고 안쪽 링을 최대한 질 안 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페미돔의 링이 치골 바로 위에 위치하게 밀어넣어줍니다. - 사정 후, 바깥쪽 링을 비틀어 입구를 막아 정자가 새지 않도록 한 후 자궁에서 조심스럽게 빼냅니다.
좋은 점	- 남성용 콘돔과 마찬가지로 피임은 물론 성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부작용이 없습니다. - 보호하는 신체부위가 다른 피임기구와 비교해 넓고, 관계 중 빠질 염려가 없습니다. - 콘돔에 비해 파손 위험이 적습니다. - 열전도율이 높아 차갑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의점 / 부작용	- 콘돔에 비해 비싸고, 착용이 번거롭습니다. - 성관계 시 소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구입방법 / 비용	-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률이 낮아 오프라인 판매처를 찾기가 힘듭니다. - 인터넷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3packs/ 20 달러(약 21,500 원)).

2. 효과가 없거나 떨어지는 피임법[2]

① 질외사정

성관계 중 사정하기 직전에 질에서 성기를 빼내어, 체외에 사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정과 오르가즘은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완벽하게 사정을 조절하기란 매우 어려워요. 또한 사정 직전에 성기를 빼내 체외 사정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외음부에 정액의 일부가 묻어 질 내로 들어갈 가능성, 사정되기 전에 나오는 남성의 분비물(쿠퍼액)에 있는 정자로 인해 임신 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피임 비용은 전혀 안 들겠지만, 임신 가능성도 높고, 성매개 질환도 예방할 수 없어요. 또 성관계 도중 신속하게 성기를 빼내야 하니 성감도 떨어지겠죠?

② 살정제[3]

살정제는 정자의 운동성을 방해하여 피임을 도와주는 원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좌약 형태의 살정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갖기 10 분~1 시간 이내에 질 안에 좌약을 삽입하면, 체온에 의해 좌약이 녹으면서 효과를 나타냅니다. 살정제는 의사 처방이 없어도 구매할 수 있고, 비용도 5 천원~1 만원으로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또 몸 전체에 나타나는 부작용도 없고, 윤활제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정제만으로 피임에 성공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약이 질 안에 고여 있을 때만 피임의 효과가 있으니 성관계 중 앉거나 서는 자세를 취한다면 약이 외부로 흘러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피임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살정제에만 의존하는 것은 권하지 않고 꼭 콘돔과 함께 사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③ 배란일 계산 통한 자연 피임법

배란기를 예측해 그 기간을 잘 피하면 임신을 하지 않는다? 배란기를 피해서 섹스를 한다고 임신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난자와 정자가 평균 생존기간보다 오래 생존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 정도나 컨디션에 따라 배란일이 바뀌기도 하고, 외부의 충격에 의해 예상보다 빨리 배란이 되기도 합니다. 자연적인 생리주기를 관찰하여 가임기(임신가능성이 높은 기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피임을 하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많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참고: 배란일 계산하는 방법

배란일은 생리 예정일로부터 14 일 전 : 임신 가능 기간은 배란일만이 아니라 정자와 난자가 살아 있는 기간까지 포함합니다. 난자 생존기는 보통 2~3 일이며, 정자가 자궁 내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은 3~5 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 배란 후 임신 가능 기간은 생리 예정일로부터 12~18 일 전이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생리 주기가 28 일 여성이 생리를 1 월 1 일 시작하였다면 다음 생리 예정일은 1 월 29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배란일은 1 월 29 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4 일 전인 1 월 15 일이 됩니다. 그러니 1 월 11 일~1 월 17 일 사이에 피임없이 성관계를 했다면 임신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월경 주기가 1 년 이상 규칙적이었던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생리 예정일로부터 배란일을 계산한 예시입니다.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 경우 이 생리 캘린더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셔야 합니다.

[2]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젠더건강팀 .(2016). 우리가 만드는 피임 사전

[3] 위의 자료.

3. 의료시설 정보

산부인과라는 명칭은 우리가 산부인과를 임산부와 기혼여성만을 위한 곳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산부인과는 산과와 부인과로 구분해서 진료를 하는데요, 산과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를 하고, 부인과에서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생리통, 생리불순, 질염, 폐경 관련 질환 치료 등 여성의 성기와 생식기에 관한 전반적인 진료를 합니다. 예전보다 여성질환과 치료에 대한 낙인이 약화되고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강해지고 있어 비혼 여성은 물론이고 청소녀 역시 질환이 발생하면 부인과 진료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의료법을 개정해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고, 여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목적의 개정안도 발의되었습니다.[4]

여전히 청소년의 산부인과 검진, 진료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들 스스로도 병원을 방문하고 검진 받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에게도 성생활을 즐길 수 있는 성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매개질환에 걸렸다거나 예상하지 못한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치료나 적극적인 의료적 대처법에 접근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대처의 시기를 놓쳤을 때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니 오히려 적극적인 예방과 초기 대처가 훨씬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대다수 청소녀의 평균적인 2 차 성질 발현 시기와 첫 경험 연령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 건강한 몸은 물론이고 건강한 성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청소녀들 역시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불규칙한 생리, 심한 생리통은 청소년들의 학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스트레스성 질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질염은 스트레스, 컨디션, 호르몬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사회적 인식이 두려워 여성질환의 치료를 미룰 경우 만성으로 이어져 치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5]

그러므로 산부인과 진료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청소년에게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감기가 걸리면 병원을 찾듯이 산부인과 역시 내 몸을 돌보기 위한 의료시설이고, 여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전문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있고, 방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성병에 관한 정보[6]

성매개감염은 사람 간에 전파되는 유기체(세균, 바이러스, 기생충)에 의한 감염으로 입, 질, 음경, 항문과 같은 신체를 활용해 나누는 친밀한 행위, 섹스 행위로 전파됩니다. 흔히 다수의 유기체에 의해 감염되며, 감염되면 다른 성매개감염에도 취약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질분비액, 사정액, 소변, 대변, 혈액, 침을 통해 전파되거나 질, 음경과 같은 외부 성기나 항문 주변의 피부 접촉을 통해 전파되거나 합니다. 음식섭취, 화장실변기, 악수 등으로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콘돔이나 페미돔 처럼성기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성매개감염의 가능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낮춰줍니다.

---

[4] 의협신문(2020) 최혜영 의원, 산부인과→'여성의학과' 변경 추진.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531

[5] 미포즈여성병원 블로그, 청소년 산부인과 색안경은 이제 그만!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qogksk37&logNo=220823971130&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6] 최예훈. (2021). 성매개감염에 대한 정보.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https://srhr.kr/issuepapers/?idx=6142928&bmode=view#:~:text=%EC%84%B1%EB%A7%A4%EA%B0%9C%EA%B0%90%EC%97%BC%EC%9D%80%20%EC%84%B9%EC%8A%A4,%EC%9D%98%EB%AF%B8%EB%A5%BC%20%EA%B0%80%EC%A7%84%20%EC%9A%A9%EC%96%B4%EC%9E%85%EB%8B%88%EB%8B%A4.

성매개질환에 감염되었다고 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 나는 물론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을 것을 권합니다. 바이러스에 따라 잠복기가 모두 다르니 임질, 클라미디아, 비임균성요도염, 헤르페스 감염은 성관계후 2~3 주가 지난 뒤, 매독, HIV 는 성관계후 4~12 주의 시기가 지나서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II. 섹스를 하게 되었을 때

1. 성기를 씻는 법

① 여성[7]

전문가들은 소음순에 피지가 쌓이거나 소변이나 대변에 의해 성기가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주일에 2~3 회 정도 씻는 것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매일 씻어도 괜찮지만 다만 자주 씻는다면 외음부의 물기를 완전히 말린 뒤 속옷을 입을 것을 권합니다.

또 비누를 사용하지 말고 물로만 씻어주세요. 정상적인 질은 질내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젖산균에 의해 HP 4.5 정도의 산성을 유지합니다. 그렇지만 알칼리성인 비누를 사용하면 산성으로 유지되던 질의 환경이 알칼리성으로 바뀌어 세균이 쉽게 번식하는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로 2-3 일에 한 번씩 씻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씻는 방향도 중요해요. 뒤에서 앞의 방향으로 외음부를 씻으면 항문 주변에 대변을 본 후 남아있을 수 있는 균이 외음부를 오염시킬 수 있으니 앞에서 뒤의 방향으로 씻어주어야 합니다. 외음부만 깨끗하게 잘 씻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해요.

② 남성

남성의 음경 역시 미지근한 온도의 흐르는 물로 씻으면 됩니다. 포경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포피 안쪽의 점막에서 분비되는 체액으로 포피 안쪽에 이물질이 쌓여요. 이물질은 악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니 포경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포피를 벗겨 음경을 노출시킨 후 포피 안쪽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2. 콘돔의 바른 사용법[8]

[7] 한채윤. (2019). 여자들의 섹스북. 이매진

[8] 이브(EVE), 2018, 이브콘돔과 함께하는 <올바른 콘돔착용법>, 이브 네이버블로그, https://m.blog.naver.com/evecondoms/221208523654

(1) 콘돔의 포장지는 가위나 치아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뜯습니다.

콘돔 포장지를 가위로 자르거나 이로 뜯으면 콘돔이 찢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손으로 포장지 가장자리의 요철 처리된 부분을 이용해 포장지를 뜯도록 합니다.

(2) 콘돔이 말려있는 방향을 확인합니다.

어두운 공간에서는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니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검지를 살짝 끼우고, 엄지와 중지로 콘돔을 내렸을 때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내리면 OK!

*TIP: 콘돔이 말려있는 부분이 덮이지 않아야 해요.

(3) 정액이 담겨지도록 디자인 된 콘돔 끝의 볼록한 부분을 꼭 잡아서 공기를 배출시켜 페니스 끝에 콘돔을 밀착시킵니다.

콘돔과 페니스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 섹스 중에 콘돔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볼록한 정액을 담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꼭 쥐고 공기를 빼준 뒤 페니스 끝에 콘돔을 밀착시켜주세요!

*주의: 콘돔 반드시 발기한 상태에서 착용합니다.

(4) 공기를 배출시켜 콘돔과 페니스를 딱 밀착시켰다면 콘돔이 페니스를 모두 덮을 때까지 말려있는 콘돔을 페니스에서 돌돌 풀어줍니다.

콘돔이 말린 방향을 잘못 확인해 콘돔을 뒤집어 착용했다면, 방금 착용한 콘돔의 방향을 뒤집어 다시 착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것을 버리고 새 것을 사용하세요. 발기된 페니스에서 쿠퍼액이 분비되는데 여기에도 정자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 콘돔을 뒤집어서 재착용한다면, 당연히 피임의 효과가 보장되지 않겠죠. 또 혹 성매개질환에 감염된 남성일 경우 착용시 바로 콘돔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옮겨갈 수 있어 성병 예방에도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5) 사정 직후 콘돔을 바로 제거합니다.

발기가 풀리면 콘돔이 성기에서 쉽게 분리됩니다. 그렇게 되면 콘돔이 자궁에 남게 되거나 그렇게 되어 정액이 셀 수도 있어요. 그러니 사정 직후 체내에서 성기를 빼고 콘돔 역시 정액이 흐르지 않도록 입구를 잘 막으며 성기에서 분리하도록 합니다.

3. 윤활제 사용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윤활제는 성기 결합 섹스 시 삽입을 쉽게 하려고 손가락이나 질 입구에 바르는 물질입니다. 흥분을 느껴도 질 분비액이 충분히 나오지 않거나, 선천적으로 양이 적을 수도 있고, 몸의 컨디션에 따라, 나이에 따라 분비액의 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분비액이 적으면 성관계시 질이나 외움부에 마찰을 일으켜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윤활제는 마찰을 줄여줘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당연히 만족도와 쾌락은 높아지겠죠? 결합 섹스 때 통증을 느껴 충분히 성관계를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젤을 쓰기를 권합니다. 단, 콘돔과 함께 젤을 사용하고 싶다면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윤활제는 수용성과 지용성이 있는데, 지용성 윤활제는 고무로 만들어진 콘돔을 부식시켜 성관계 도중 콘돔이 찢어지거나 훼손될 수 있습니다. 수용성 젤은 생식기 안으로 들어가도 신체에 거의 자극을 주지 않으며 나중에 분비물과 함께 외부로 배출됩니다. 지용성 윤활제와 달리 옷, 침대보, 몸에 묻어도 잘 닦입니다.

III. 섹스가 끝난 후

1. 성행위가 계획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1) 응급피임법[9]

카테고리	내용
원리	응급피임약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율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UPA, 상품명: 엘라원)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에 작용하여 배란과 착상에 필요한 호르몬을 억제합니다. 성관계 후 5 일까지 복용 가능합니다. - 레보노르게스트렐(LNG, 상품명: 노레보, 포스티노)은 고용량 프로게스틴입니다. 배란을 억제하고, 착상을 어렵게 합니다. 성관계 후 72 시간 내 복용해야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임성공률이 떨어집니다.
신체변화	응급피임약을 먹고 나면 어지럽거나 구역감, 피로, 두통, 복부 통증, 유방이 팽팽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생리 주기가 바뀌고 월경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리 주기가 지남에 따라 이러한 몸의 변화는 사라지게 됩니다.
사용법	- 응급피임약을 복용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나 검사가 없습니다. - 피임 없이 섹스한 후에 가능한 빨리 복용할수록 더 효과적으로 임신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섹스 후 5 일이 지나기 전까지 복용한다면 임신을 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9]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젠더건강팀 .(2016). 우리가 만드는 피임 사전

주의점	- 생리 주기 내 1 번만 복용할 수 있습니다. 약 복용 후 3 시간 내에 토하면 다시 새로운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 응급피임약을 처방 받거나 구입할 때, 의료인에게 약 복용 뒤에 언제 어떻게 피임법을 다시 시작할지 (다음 피임약을 언제부터 복용해야 할지, 반드시 콘돔을 함께 사용해야 하는지 등) 상담이 필요합니다. - 응급피임약도 호르몬 피임제이기 때문에 복용하고 있는 다른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전간제, HIV 치료제, 결핵 치료제, 일부 위장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응급피임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복용중인 약이 있다면 응급피임약을 처방 받기 전 의료인과 상담합니다.
구입방법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산부인과 처방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의학과 가능) 산부인과나 대형병원 근처 약국이 아니라면 약국에 약을 구비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전화를 해서 약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용	진료비와 약 구입비용 모두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모든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진료비는 1 만원~2 만원정도, 엘라원은 3 만원 대, 노레보와 포스티노는 보통 1 만 5 천~2 만원입니다. 응급실에 방문한다면 응급진료비가 포함되어 진료비가 5 만원 이상 일 수 있습니다.
핵심포인트	- 나이 제한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응급피임약은 피임 없이 섹스를 한 후에 임신을 예방하도록 돕습니다. - 섹스 후 5 일 이내에 복용했을 때 임신 예방 효과가 있으니 빨리 복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 이미 임신이 된 경우에 작용하지 않습니다. - 모든 여성에게 안전합니다. - 이후 지속적인 피임을 시작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임신중지, 출산, 양육과 입양[10]

[10]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2020). 상담자와 의료인을 위한 임신중지 가이드북 곁에,함께. 2021 년 헌법불합치로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낙태죄는 현실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사문화되었으나 처벌 조항이 사라지지 않아 임신중단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처벌로 금지해왔던 문화만이 존재했던 탓에 낙태죄는 폐지되었지만 임신중단에 관한 법과 제도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처벌 조항이 없지만 임신중단 관련 조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아 의사 개인이 현장에서 시술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관련 용어들이 출산을 전제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2021 년 8 월 2 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공임신중절 교육과 상담을 여성이 의사에게 요청한다면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을 위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을 발령했으나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무사항으로 되지 못해 의사 개인의 양심과 신념에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즉 누군가 임신중단을 원한다면 여전히 문제 대부분의 몫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떠맡겨져 있어요. 임신중지에 관한 정보는 그간 낙태죄 폐지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던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감당하며 우리 사회에 제공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 년 12 월 4 일 성적 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에서 펴낸 임신중지 가이드북 <<곁에, 함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자료입니다. 본 강의안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임신중단, 임신유지, 양육 혹은 입양에 관한 아주 기초적인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셰어의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임신중지

임신중지를 고려하는 사람은 누구나 선택과 결정에 관한 권리, 정보와 상담, 의료접근성에 관한 권리, 양질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선택과 결정에 관한 권리	✔ 임신을 유지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 ✔ 임신중지의 과정, 방법, 합병증, 관련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 향후 다시 임신을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 ✔ 임신중지 후 의도치 않은 임신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피임 시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 ✔ 자신에게 맞는 피임의 방법, 도구,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피임 방법을 선택할 권리
정보와 상담, 의료 접근성에 관한 권리	✔ 임신중지를 요청한다는 이유 또는 임신중지를 요청하는 특정한 상황이나 사유를 이유로 상담이나 의료 서비스를 거부당하지 않을 권리 ✔ 자신에게 가까운 지역에서 정보와 상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을 권리 ✔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객관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정보와 상담, 의료 지원을 제공받을 권리 ✔ 문자, 음성, 그림, 수어, 다국어 등 다양한 언어와 방법으로 정보, 상담,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 ✔ 상담이나 의료지원의 과정에서 필요한 이동 수단이나 편의시설을 지원 받을 권리 ✔ 연령, 혼인 유무, 질병, 장애, 국적이나 인종,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경제적 상태 등에 따라 필요한 정보, 상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를 거부당하지 않을 권리
양질의 지원을 받을 권리	✔ 자신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필요를 고려한 지원을 받을 권리 ✔ 국제적인 수준에서 권고되는 최신의 의료 가이드와 기술, 의학적 방법에 따라 상담과 의료 지원을 받을 권리 ✔ 감염 예방, 통증 관리, 합병증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표준 프로토콜에 따라 지원을 받을 권리 ✔ 임신중지에 관한 지원과 연계하여 성매개감염에 관한 검사와 진단을 받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임신중지에 관한 지원과 연계하여 성폭력 상황에서 필요한 상담과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2) 임신 유지 및 분만

임신의 유지나 출산은 한 생명을 책임지려는 가치 있는 결정입니다. 그러니 임신을 유지하기로 하였다면 누구나 존중받고, 안전하고 존엄하게 임신 유지와 출산에 관한 권리를 보장을 수 있어야 합니다. 출산 후 본인이 양육을 하게 될 수도, 입양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자세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임신 기간 및 분만 전후에 관한 정보
✔ 임신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변화 및 합병증, 유산 등에 관한 일반적 정보

✔ 유산 혹은 분만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변화 및 후유증 등에 관한 일반적 정보 ✔ 다양한 분만 시설(병원·조산원 등) 및 방식(분만 과정, 분만 시 이용 가능한 약물이나 수술, 분만실 및 입원실 형태 등) ✔ 필요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검사, 상담 등) ✔ 필요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타 서비스(산후 조리, 가사 도우미 등) ✔ 출산휴가·휴학 등 노동, 학습 등과 임신 및 분만과 관련해 보장되는 권리

↓ ↓

• 양육을 결정했을 때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	• 입양을 결정했을 때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
✔ 일반적인 아동 발달 단계에 따른 양육에 관한 일반적 정보 ✔ 친권, 양육권 등 아동 보호자의 권리에 관한 일반적 정보 ✔ 분만 후 내담자 및 아동의 상황이나 건강 상태 등을 토대로 판단한 구체적인 정보 ✔ 의료비, 양육비, 주거비 등 양육과 관련해 요청할 수 있는 정부 및 민간기관의 지원	◦ 입양을 결정할 수 있으나 일주일의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아동을 직접 보호·양육해야 함(이후 입양동의서를 제출하고 입양 기관에 인계 가능) ◦ 법원의 입양 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아동의 성과 본은 양친을 따르게 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 입양된 사람이 요청할 경우에도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인적사항이 공개됨 ◦ 전현직 입양기관 종사자는 입양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 등 ◦ 입양 절차, 입양 기관의 종류 및 입양 기관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

3.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즐겁고 안전한 섹스를 나누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도 수치스러운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은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섹스 관련 사진이나 영상으로 협박당할 때 잘못은 협박당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불법으로 영상물을 촬영해서 협박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 절대 잊지 말아요!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면 적극적으로 주변에 도움을 청합니다.

< 상담, 지원 기관과 정보 안내 >[11]

구분	기관명	지원내용
임신중지	Women Help	| https://womenhelp.org/

[11]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2020). 상담자와 의료인을 위한 임신중지 가이드북 곁에,함께

관련 정보	Women	사이트 접속이 어렵다면 info@womenhelp.org 로 문의 이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임신중지 접근성에 관련한 활동을 하는 국제비영리단체로, 임신중지 접근성이 제한된 지역에 약물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임신을 중단시키는 약물을 보내주는 활동을 합니다.
피임 정보	우리가 만드는 피임사전	| https://100.daum.net/book/772/toc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젠더건강팀에서 발간한 피임백과사전
	피임생리이야기	| http://wisewoman.co.kr/piim365/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 운영하는 피임·생리 정보 사이트입니다. 의사에게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생리주기어플 '핑크다이어리'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비혼모 상담, 지원 단체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서울)	☎ 02-322-5007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https://kumsn.org 비혼모와 만 24 세 이하 청소년 나이로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이들을 위한 사업을 조직하는 단체로 주거, 의료, 금융지원 상담 등의 활동을 합니다.
	한국미혼모가족협회(서울)	☎ 02-2693-5007 | http://www.kumfa.kr 비혼모들과 그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 비혼모 당사자들이 만든 단체로, 비혼 임신출산 상담 및 지원, 긴급일시보호쉼터 운영, 병원 연계 등을 합니다.
폭력, 학대 관련 상담 및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가정폭력 및 성매매 관련 폭력 피해를 입었을 시 국번없이 1366 에 전화하면 지역별 센터로 연결되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상담소나 병원, 경찰과 연결을 해 줍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 사무 02-338-2890~2 / 상담 02-338-5801 비영리 여성운동단체로, 성폭력피해생존자 상담 및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 성폭력피해생존자 자조모임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부설 성폭력피해생존자 보호시설 '열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문화, 성교육 관련한 활동들과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성주의 자기방어 훈련 프로그램, 피해자 말하기 소모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	☎ 02-814-3660 | http://dasi.or.kr/ 한국 YMCA 전국연맹이 서울시로부터 수탁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로, 성매매 관련 피해 지원 및 상담 등의 사업을 합니다. 청소년 지원 담당부서도 있습니다.
청소년	청소년전화 1388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1388 과 친구맺기 후 상담 실시 만 9~24 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고민부터 다양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 사무 02-6227-1543 / 상담 02-6227-1541, 010-4621-1541 | https://www.imbom.or.kr/ 십대 여성들에게 의료, 교육, 심리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성건강 상담과 교육,

		무료진료(여성의학과, 치과, 대체의학(한의), 정신보건), 식사 등을 제공합니다.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 02-2677-9220 / 상담 02-2676-1318 | https://www.ahacenter.kr/ YMCA 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성교육·성상담 전문기관입니다. 센터를 방문해 성교육 체험을 할 수 있고, 사이트에서 교육프로그램 신청, 사이버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관련 발간자료들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	☎ 02-3280-7947 | http://joeunsesang.org 십대 여성들에게 식사, 생필품, 의료지원과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IV/ AIDS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 010-2164-1201(전화, 문자) 이용시간: 화~토 11 시~19 시(오후 7 시) | http://communityr.org/ 청소년·청년 HIV 감염인 간의 네트워킹과 HIV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해 설립한 단체로, HIV/AIDS 혐오와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및 대응지원을 하기 위해 단체 대표전화를 개설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 02-735-8994 (상담가능시간 365 일 24 시간)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심리치료연계지원 등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02-335-1858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심리치료연계지원 등
무료 콘돔	서울 아이샵 (성소수자 에이즈예방센터)	☎ 02-792-0083 (https://ishap.org/)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서 운영 한다. 연락처, 주소, 이름을 알려주면 콘돔과 윤활제로 구성된 개인 패키지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배송료 본인 부담)
	이브콘돔 (브래드샵)	| https://evecondoms.com/index.html -프렌치레터 프로젝트(청소년 대상) 오프라인에서 직접 콘돔을 구매하기 곤란한 청소년들에게 매월 초 우편을 통해 1 인당 2 개씩의 콘돔을 보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렌치레터 프로젝트는 피임이 필요한 사람에게 피임도구가 너무 멀거나 어렵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 하에 시작된, 이브의 가장 오래된 소셜 프로젝트입니다.
의료	살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원 (부인과)	☎ 02-6014-9949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 149 2 층 / 구산역 6 호선) - 여성주의 건강관을 기반으로 지역주민들이 협동하여 의료, 복지, 돌봄기관을 만들어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입니다. - 가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부인과가 협진하여 통합적으로 진료합니다.

[참고자료]

나영정 (2021)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이슈페이퍼-성 건강, 성적 권리, 성적 쾌락을 연결하기 http://srhr.kr/2021/1946/

나영(2019). 월간워커스. '성'을 '권리'로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권리로서의 성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을까?. http://workers-zine.net/30758

미성년자가 HIV 및 성병 서비스를 받기위한 동의를 제공 할 수있는 주법

https://www.cdc.gov/hiv/policies/law/states/minors.html

미포즈여성병원 블로그, 청소년 산부인과 색안경은 이제 그만!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qogksk37&logNo=220823971130&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2021).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대학 성지식백과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2020). 상담자와 의료인을 위한 임신중지 가이드북 곁에,함께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이슈페이퍼-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즐겁고 안전한 성교육을 향해 성교육 참여 후기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젠더건강팀.(2016). 우리가 만드는 피임 사전

앤 마를레네 헤닝 , 티나 브레머 올제브스키. (2013) 스무 살 전에 알아야 할 성 이야기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진짜 성이야기. 예문

인사이트 정치,사회. 함철민 기자.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성병 치료 안하고 숨기는 …10 대 청소년 성병 환자 급증 https://www.insight.co.kr/news/257284)

인권운동사랑방. (2013) [미성숙폭동] 청소년 성적 권리 선언

https://www.sarangbang.or.kr/oreum/71424

의협신문(2020) 최혜영 의원, 산부인과→'여성의학과' 변경 추진.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531

최예훈 살림의원 산부인과 전문의. 은평시민신문, 당신의 '성적 권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http://www.e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6889

최현정. (2020). 셰어의「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소개합니다

http://hopeandlaw.cafe24.com/%ec%85%b0%ec%96%b4%ec%9d%98-%e3%80%8c%ec%84%b1%e2%88%99%ec%9e%ac%ec%83%9d%ec%82%b0-%ea%b6%8c%eb%a6%ac-%eb%b3%b4%ec%9e%a5-%ea%b8%b0%eb%b3%b8%eb%b2%95%e3%80%8d%ec%95%88%ec%9d%84-%ec%86%8c%ea%b0%9c/

한채윤. (2019). 여자들의 섹스북. 이매진

이브(EVE). (2018). 이브콘돔과 함께하는 <올바른 콘돔착용법>, 이브 네이버블로그,

https://m.blog.naver.com/evecondoms/221208523654

5 강

안전하고 즐거운 섹스를 위한 규칙 만들기

이 충 열

(여성주의 현대미술가)

안전하고 즐거운 섹스를 위한 규칙 만들기_워크숍[1]

워크숍 개요

- 목표: 안전하고 즐거운 섹스를 위해 나만의 규칙을 정해보고, 나아가 현재 혹은 미래의 파트너와 어떤 규칙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규칙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 본다. 이를 통해 실제 섹스에서 나의 권리를 행사함과 동시에 상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돕는다.
- 참여 인원: 6 명 (워크숍의 목표대상은 10 대 후반~20 대 초반의 후기 청소년 10 명 이내이지만, 시범워크숍 참여자는 20 대 초~30 대 후반 지정성별 여성 5 명+20 대 초반 지정성별 남성 1 명)
- 기자재: 활동지(ppt 출력), 드로잉 도구 (오일파스텔 세트, 12 색 펜)도구, 필기도구, 가위

○ **워크숍 세부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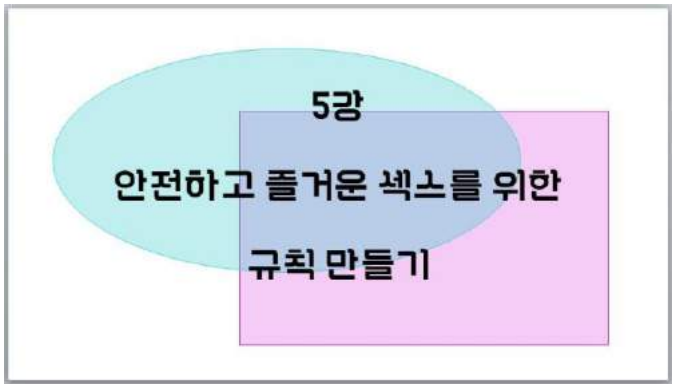
교육목표	안전하고 즐거운 섹스를 위해 나만의 규칙을 정하고, 파트너와 어떤 규칙을 만들고 어떻게 소통할지 미리 생각해봄으로써 실제의 섹스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상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돕는다.		
교육내용	1. '일반적'인 섹스 시나리오 점검하기 2. 내가 원하는 섹스를 상상하기 3. 상상을 규칙으로 연결하기 4. 파트너와 소통하기		
세부내용	내용	소요시간	누적
	Ice-breaking) 몸 인사 나누기 : 각자 악수 외에 신체를 접촉하는 인사 정해서 모두와 해당 규칙 아래 인사 하기 ☞ 신체 접촉의 규칙을 스스로 정하는 워밍업	5 분	5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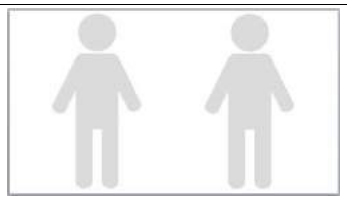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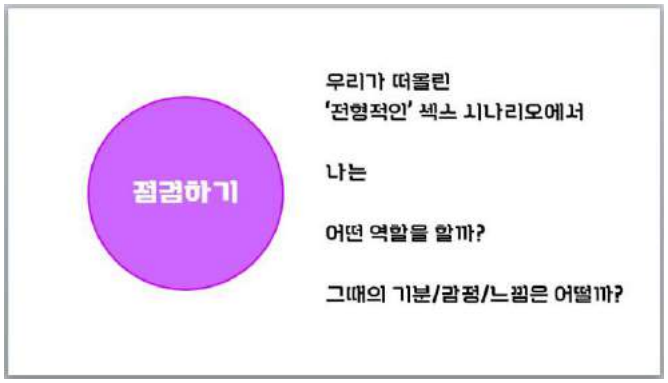
[1] 5강은 시범강의의 내용과 시범강의가 모두 종료된 후 이충열 선생님께서 강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진행하신 워크숍의 내용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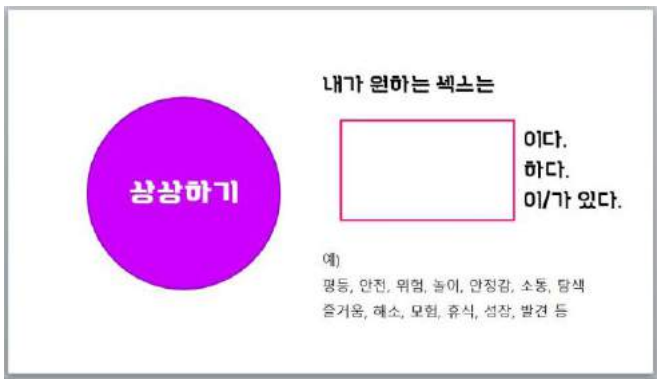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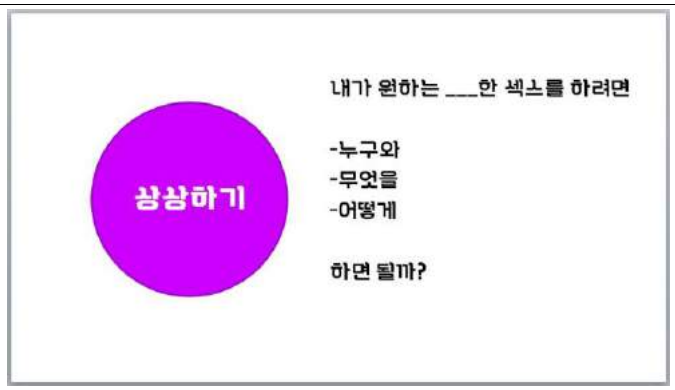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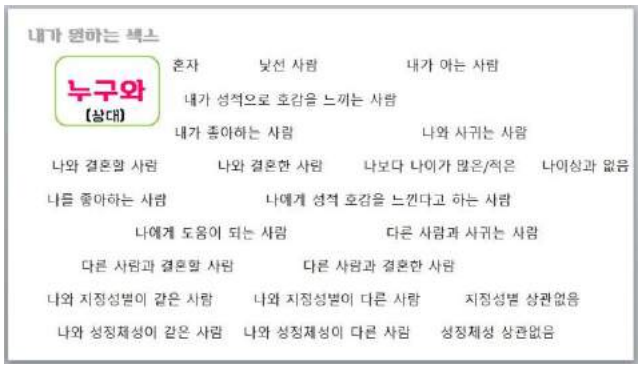
	몸 인사 나누기와 연관지어 섹스 역시 몸으로 하는 소통임을 합의하고 워크숍의 목표를 설명	5 분	10 분
	1. 미디어 속 전형적인 섹스 시나리오 점검해보기 : 각자 섹스 상황을 인형놀이로 표현하기 1) 섹스의 시작부터 끝까지 시나리오를 정해서 나눠준 사람형태 그림에 덧그리거나 색을 칠하고 오려서 사용하기 2) 발표(메모하기) 3) 상황, 역할, 권력관계, 동의여부, 의사소통방법, 섹스 참여자의 외모 등에 대한 공통점 찾고, 자신이 그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상상해서 느낌 나누기	약 30 분 (준비 5 분) (각 1 분) (대화 15 분)	40 분
	전형적인 '섹스'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다양한 욕구를 포함하지 못할지 이야기하며 각자 섹스관이 필요하다는 합의를 도출하기	5 분	45 분
	쉬는 시간	10 분	55 분
	2. 내가 원하는 섹스 상상하기 : 함께 이야기하기 ☞ 키워드 정하기(평등, 안전, 안정감, 소통, 탐색, 즐거움, 해소, 모험, 휴식 등) : 각자 체크해보기 ☞ 내가 원하는 섹스: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 내가 원하는 섹스에서 나와 너	약 20 분 (5 분) (15 분)	75 분

	3. 상상을 규칙으로 연결하기 : 규칙카드 작성 섹스는 누구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해, 돼, 안 해, 안 돼 : 발표	약 15 분 (5 분) (각 1 분)	90 분
	4**. 파트너와 소통하기** :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안전하고 즐거운 섹스에 도움이 될까? ☞ 섹스 전 ☞ 섹스 중 ☞ 섹스 후 어떤 방식으로 하면 편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15 분	105 분
	마무리 소감공유하고, 활동내용과 의미 정리	10 분	115 분

○ **발표자료/활동지와 진행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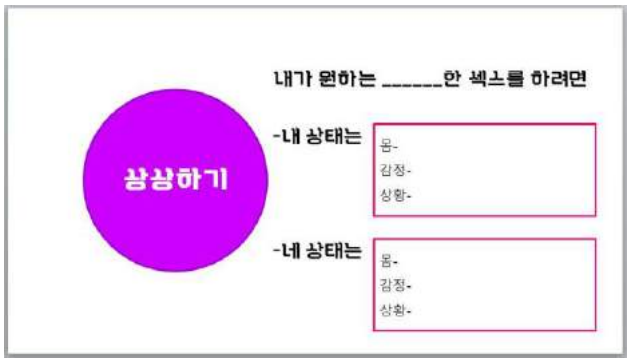
1		- 수업 시작 전 1~4 강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간단히 되짚어보며 워크숍을 소개한다.
2		"악수는 우리 사회에서 몸을 접촉하며 인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잖아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 서로의 손바닥을 접촉하는 악수 외에 신체의 다른 부분끼리 접촉하는 인사를 해볼 거예요. 손등, 팔꿈치, 무릎, 엉덩이 등 각자 다른 사람과 접촉하며 인사할 부위를 정해주세요. 단, 앞에서 했던 것을 반복하면 안됩니다." ☞ 시범워크숍 사례) 팔꿈치, 무릎, 이마, 어깨, 골반, 손목, - 신체 접촉의 규칙을 스스로 정하는 워밍업의 의미 설명 "우리가 방금 서로의 신체를 접촉해서 인사를 나눈 것처럼, 섹스 또한 신체 접촉을 통해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신체 인사 방법을 각자 정할 수 있듯이 섹스도 각자 원하는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잘 소통하는 것이 안전하고 즐거운 섹스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3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섹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다음 장에 있는 사람그림을 활용해서 섹스에 참여하는 사람을 그려서 오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며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간단한 시나리오를 구상해보세요."
4		(5 분, 그리고 시나리오 구상 후) 각자 1 분 이내 발표
5		"우리가 떠올린 전형적인 섹스 시나리오에서 공통점이 무엇이었나요?" - ppt 의 항목을 짚으며 이야기를 듣고, 취합한 내용 정리해주기 ☞ 시범워크숍 사례) 젊고 날씬한 여/남 등장, 남성이 리드, 대화 거의 없음, 질 삽입 후 사정하면 섹스 끝, 다음날 아침 하얀 이불, 밝은 햇살 등
6		"내가 앞에서 이야기된 섹스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면 나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 시범워크숍 사례: 지정성별 여성은 남성 리드에 따르는 역할, 지정성별 남성은 리드 "그런 섹스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한다면 기분이나 감정, 느낌은 어떨까요? ☞ 시범워크숍 사례: 여성은 불만, 남성은 여성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부담으로 자신의 느낌에 집중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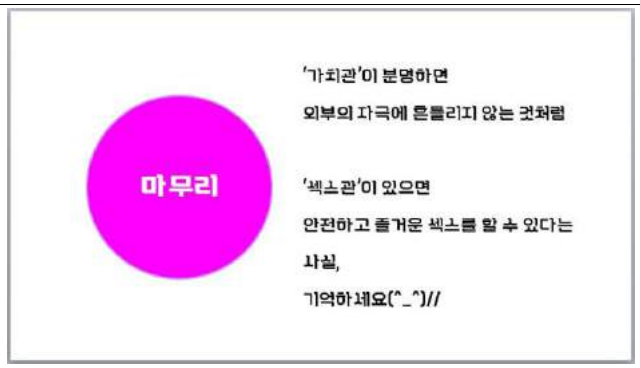
7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섹스는 어떤 것일지 언어로 표현해볼까요?" (생각하기 2 분) ☞ 시범워크숍 사례: 교감+즐거움+발견/안전+친밀감+안정감/청결+안정+계획/안전+오르가즘+모험/평등+안전+소통+탐색+즐거움+모험/안전+성장+발견+소통 (공유하기: 키워드 중심, 각자 20 초 이내)
8		"우리가 각자 원하는 섹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각자가 원하는 섹스를 표현한 단어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다음장부터 이어지는 질문의 답이 되는 항목에 모두 동그라미를 하면서 생각을 더 구체화해보려고 합니다."
9		"섹스의 상대가 있거나 없을 수 있을텐데 누구와 할지 생각해볼까요?" 혼자, 낯선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성적으로 호감이 가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사귀는 사람, 나와 결혼할 사람, 나와 결혼한 사람, 나보다 나이가 많은/적은 사람(몇 살까지?), 나이 상관없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성적 호감을 느낀다고 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다른 사람과 사귀는 사람, 다른 사람과 결혼할 사람, 다른 사람과 결혼한 사람, 나와 지정성별이 같은 사람, 나와 지정성별이 다른 사람, 지정성별 상관없음, 나와 성정체성이 같은 사람, 나와 성정체성이 다른 사람, 성정체성 상관없음 등

10		- ppt 항목 안내, 내용 추가 가능하다고 알려주기 ☞ 시범워크숍 사례: 추가된 내용 - 역할극, 마사지, 눈 바라보기, 오일마사지
11		' 어떻게'의 내용을 세분화할 필요성 설명
12		- ppt 항목 안내, 내용 추가 가능하다고 알려주기
13		- ppt 항목 안내, 내용 추가 가능하다고 알려주기

14		- ppt 항목 안내, 내용 추가 가능하다고 알려주기
15		- ppt 항목 안내, 내용 추가 가능하다고 알려주기
16		-ppt 항목 안내, 내용 추가 가능하다고 알려주기
17		빈 칸 채우기 ☞ 시범워크숍 사례: 콘돔, 섹스 전 합의/확인, 연락처 공유, 믿을만한 친구에게 장소 알리기

18		"내가 원하는 섹스를 하기 위해서는 내 상태 뿐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섹스를 하려면 나의 몸은 어떤 상태가 좋을지, 감정은 어떤 상태가 좋을지, 나의 상황은 어떨 때가 좋을지와 상대방에 대해서도 각각 적어보아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돕는 말: ☞ 몸 상태: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은지, 월경중인지, 아프거나 다친 곳은 없는지 등 ☞ 감정 상태: 취하거나 조절이 힘든 상태가 아닌지, 심리적으로 압박감은 없는지, 원하는지 등 ☞ 상황: 불안한 일은 없는지, 요구/대가성이 있는지, 거절하면 불이익이 예상되지 않는지, 급한 일은 없는지 등
19		"앞에 체크했던 것을 넘겨보면서 내가 원하는 섹스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종합해서 적어보세요!"
20		"내가 원하는 섹스를 하기 위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하거나 하지 않을 행위를 각각 해/안 해 에 써보세요. 내가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상대가 나에게 제안하는 것을 어디까지는 수용할 수 있을지, 어떤 것은 절대 안 될지 마지노선을 생각하며 돼/ 안 돼를 써보세요." (각자 1 분 정도 발표) ☞ 시법워크숍 사례:

		- 해: 키스, 애무, 기구사용 등 - 안 해: 오럴받는 것, 야외섹스, 여럿섹스, 영상사직 기록, 샤워안했을 때, 연인과의 일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 근육통 있을 때 섹스 - 돼: 오럴하는 거, 물어봐주면 다(?) - 안 돼: 섹스 중 더티토크, 오럴, 영상/사진 기록, 항문삽입, 타인관람, 월경중, 동의없이 은근슬쩍,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때 등
21		"우리가 각자 정한 규칙을 상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요? 섹스 전과 섹스 중, 섹스 후에 이야기할 내용들을 이야기해보아요." => 자연스럽게 함께 이야기 ☞ 시법워크숍 사례: - 섹스 전: 6 개월 이내 성병검사, 섹스 경험토크, 성감대, 흥분요소, 콘돔, 손톱 점검, 씻기, 배고픈지, 의사소통 "~~해도 될까? 넌 어때?" - 섹스 중: 진짜 좋은 순간 공유, 좋은 곳 알리기, 몸상태 점검 - 섹스 후: 오르가즘이 언제 있었는지, 또 만날지, 씻기, 씻어주기, 뭐 먹을지, 마사지, 섹스 중에 말하지 못한 것 소통 (어떤 방식으로 하면 편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22		- 소감공유하고, 활동내용과 의미 정리 - 나온 이야기 중에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보게 돕기